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연재해와 여러 분쟁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5년 1월 18일 (토) 제 2000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부활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은 완성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티어스 포 피어스(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누구나 다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이다. 이 노래는 1980년대 음악의 가장 좋은 점을 잘 표현하는 동시에 심오한 진실까지 담고 있다.

산에 오름으로 창조물의 일부인 산을 "지배"하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지난 6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고, 그중 7,000명이 세계 최고봉을 "정복"했다. 하지만 위험이 없이 이 업적은 불가능하다. 약 350명이 그 와중에 목숨을 잃었다. 인류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이 (그리고 죄가) 우리를 막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창조물을 다스릴 특권과 소명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만난다. 다행히도 성경의 이야기는 죄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3:15), 이 소망은 창세기 3:15에서 요한계시록 22:21까지 전개된다.

이 소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 나는 부활과 통치라는 두 가지 주제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어떻게 함께 나타났는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원수들을 다스리신다. 그 결과 창조물을 다스리신다.

부활과 왕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왕국의 도래를 의미한다(막 1:14-15).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다(요 11:25). 더욱이 그의 죽음은 메시아됨과 연결되어 있으며(고전 1:23)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최후의 희생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오른편으로 높이셨다고 선포한다(행 2:22-36).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16-37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전파하면서 그의 부활을 그의 왕권과 연결한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의 즉위, 즉 왕위에 오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려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즉위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힌다. 로마서 1:4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라고 썼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약함 가운데" 다스리셨지만(고후 13:4), 부활을 통해 이제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신다. 더욱이 에베소서 1:20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고 썼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왕위에 오르심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암시하고 보장할 정도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왕권 사이의 연결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시편 8편), 히브리서 저자는 다가올 세상이 인간에게 복종할 것임을 강조한다(히 2:5-8). 하지만 문제는 현재 세상 모든 것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8절). 바로 죄와 죽음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인간의 부름은 억눌려져 좌절되고 말았다. 인간은 부족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의 최종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에는 오히려 창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

살아있는 자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중요해진다.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현재 이미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다"(9절). 창조 당시의 인간에 대한 것과 같은 설명이다(시 8:5).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오로지 죽음을 이기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3면으로 계속〉

LA 산불이 이토록 강력하고 빠르게 확산한 이유

3만1000에이커에 달하는 지면이 불로 뒤덮여

통제 불능의 산불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곳곳을 휩쓸며 황폐화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최소 3만1000에이커에 달하는 지면을 뒤덮었으며, 수십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건물 수천 채가 무너져 내렸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도 여전히 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현지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최소 5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우선 최초로 발생한 화재이자 최대 규모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멜 깁슨, 패리스 힐튼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퍼시픽 펠리세이즈의 고급 주택가를 포함해 드넓은 지역을 집어삼켰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3건의 산불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일에는 웨스트 힐즈 지역에서 새롭게 케네스 산불이 발생했는데, 당국은 해당 산불과 관련된 방화 혐의로 남성 1명을 구속했다. 정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어둠에 빠진 가운데 대피에 나선 주민들이 몰리며 도로는 꽉 막혔다. 학교와 대학교들도 휴교령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번 LA 화재는 왜 이토록 강렬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일까.

1. 잠재적 땔감 역할의 초목 증가

전문가들은 엘니뇨 등으로 인해 지난 2024년 폭우가 내린 탓에 이번 겨울 화재 위험이 커졌다고 말한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화재 연구원인 로리 헤이든은 "화재 발생 전후 강우량이 높아지면 초목이 대폭 자라게 되고, 이는 잠재적인 땔감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임병수 목사

7면
선교한국
손상웅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KIM Mission 동역 네트워크 – 퍼스펙티브스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Perspectives on the Global Christian Movement – 세계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J 베다니교회 원로목사) | 톰 맥그리거 목사 (Beeville,TX) | 용장영 목사 (LW Comm. Church, LA) | 손찬식 목사 (샌디에고 삼일교회) | 김대영 목사 (어스틴 큰빛교회) | 토니 하트만 목사 (San Antonio, TX) | 박영배 목사 (뉴라이프선교교회) | 김용식 목사 (브라질, 선교학 교수) | 임재량 목사 (미션 토론토)

대 표 | 파송선교사 | 명예이사장 | 이사장 | 전임이사장

김태숙 목사 (보령선교교회) | 최관섭 목사 (중앙아시아) | 전재형 목사 (캄베나스 한인교회) | 이길혁 목사 (국제난민선교회) | 김경환 목사 (US연방VA 채플린) | 김정용 박사 (에티오피아) |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 이원구 장로 (서울 새로운교회, 산은캐피탈) | 최도문 장로 (치과의사, 달라스)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이광현 장로 (JITA Inc대표, NY) | 황정규 안수집사 (전북 정읍) | 이순권 장로 (치과의사, TX) | 임소영 장로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 | 윤수현 장로 (샌안토니오,TX) | 강동철 안수집사 (Teradyne Boston) | 김호태 박사 (C&P Tech 대표) | 박한배 장로 (대구동아신경외과원장) | 장재권 장로 (마산장편한내과 원장)

기도이사 | 기도이사 | 기도이사 | 기도이사

윤천경 권사 (샌안토니오,TX) | 육진영 권사 (샌안토니오,TX) | 김정순 권사 (볼티모어, MD) | 도나 데텬 (뉴브라운펠스, TX)

[킴미션 유비쿼터스 영상 선교 세미나]

KIM Mission은 지난 2002년 봄부터 현재까지 24년 간 세계적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70 차례에 걸쳐 전 미주 주요도시들과 전세계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들 및 여러 선교지에 직접 가서 진행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수료자 5000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킴미션과 함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Global Christian)으로 섬겨오는 평신도 동역자들과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유비쿼터스 영상 선교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선교현장 소식과 간증 그리고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전략들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세미나는 선교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동일한 구글 MEET 링크 https://meet.google.com/eip-bapy-jcf 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클릭하시면 곧 바로 영상 세미나로 연결됩니다. 이 세미나가 열리는 일시와 주제, 강사 등에 관해서는 아래 킴미션 웹사이트를 통해 그 때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어오셔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자기 소개를 하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제71회 퍼스펙티브스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 루이지애나 세미나 – 현재 진행 중]

킴미션이 지역교회들의 요청에 자비량으로 섬기며 진행해 드리는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는 2024년 6월 중미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현장에서 제70회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제71회 퍼스펙티브스 루이지애나 세미나가 킴미션 본부가 있는 루이지애나 주 슈립포트-보죠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반석한인침례교회 (원로 이용구 목사님, 담임 김신일 목사님)에서 매월 한 차례씩 (주일 오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으로 이 세미나를 직접 유치하거나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 킴미션 웹사이트 (www.KIMMission.org)에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그 어떤 지역 세미나 보다 더 자세하게 강의 녹화 된 88개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지역 세미나와 동일한 수료증 발급해 드립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Global Christian Movement가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 전 풀러신학대학원 교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현대선교의 아버지윌리엄 캐리 선교사)

우리 킴 미션은 "세상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Missional Life)을 실현하기 원하며 대표 김경환 목사 (미육군군목예편-애리조나 주립교도소사역 역임-현 미연방 베테랑스병원 채플린)와 모든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섬깁니다. 미주 전 지역 교회들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세미나 혹은 선교 사경회로 주말 2-3일간에 마치기를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이사야 32:8)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킴 미션 미주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시 론

바람과 불 앞에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시속 100마일은 엄청난 속도이다. 자동차도 100마일 이상 주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 LA의 바람은 이 정도로 거셌다. 불은 인류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였다. 그러나, 가끔 이번 산불은 강도처럼 돌변해 죽음의 혀를 널름거리며 다 집어삼켰다.

수많은 사람이 이 바람과 불 앞에서 졸지에 이재민(罹災民, 재해를 당한 사람)이 되었다. 수백만 달러짜리 집이 화마에 삼키어졌어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그 바람과 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시간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불쌍한 이재민 신세가 되었다. 이 바람과 불은 상당히 멀리까지 연기와 냄새가 되어 전파되면서 모든 시민들을 간접적 이재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무서운 바람과 불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과 함께 서로를 향한 자비심과 다른 형태의 이재민들을 향한 긍휼심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평소 무관심과 적대감 등으로 살아가던 이 사회 안에 다시 위로와 나눔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바람과 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난인가, 재해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재난(災難)이나 재해(災害, disaster)는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나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뜻한다'고 설명하는 사전적 정의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체 및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로써 태풍, 홍수, 폭우,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지진,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상태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LA의 바람과 불은 어쩔 수 없는 재해, 재난이 맞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앙(災殃)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바람과 불의 재해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던 여러 재앙 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물론 교회는 이번 재해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발렌티어로 참여해 이재민 위로와 현장 복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에 교회의 또 앞장서고 있다. 언제나처럼 교회는 즉시 이와 같은 일에 희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람과 불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인간으로서 막아낼 수 없는 큰 재해 앞에서 교회는 가장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가 희생적 사랑의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해를 재앙적 의미로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뉴스 영상은 이 재해를 재앙으로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하게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연속으로 인한 10가지 재앙이 임한 현장과 다른 바 없을 정도이다. 그러면, 이번 몰아친 바람과 불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재앙 같은 영상화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가진 자의 축복은 무엇이며 없는 자의 허기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이 엄청난 자연재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야만 한다.

다른 종교기관도 심지어 이단들도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며 구호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의 손과 발은 현장으로 나가서 심하고 낙심한 마음들을 부둥켜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어야 하지만, 허무하게 사라진 폐허와, 무너진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비법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찾아내는 참된 생명 가치에 있다.

재산과 추억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인 이 바람과 불이 변하여 인생을 시원케 해주는 바람,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불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기억하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djlee7777@gmail.com

욥의 속 울음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분노의 속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욥기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쉽지 않다. 욥기를 통해 제기되는 물음들, 섭리와 악, 무고한 이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본성,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지위 등등은 모두 손쉽게 종결될 수 없고, 종결되기를 거부하는 물음들이다. 욥기는 이처럼 매우 복잡한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선입견과 제한된 상상력을 발휘해 이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욥기는 고통 받는 이, 병든 이와 분노한 이, 신비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힘을 준다(마크 래리모어, 욥기와 만나다, 30).

욥기는 가족의 사망, 재산의 손실, 건강의 악화, 부부 갈등, 친구의 비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등으로 인한 외상의 문제뿐 아니라 의인의 고난, 악의 문제,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욥기는 극심한 상실과 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한다.

욥은 재산을 전부 잃고, 자녀들은 모두 죽고, 건강까지 나빠졌다. 욥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상실을 겪는다. 욥의 이러한 상실은 심한 외상까지 초래하게 된다(욥 21:6). 욥의 상실과 외상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두드러지게 경건하였기 때문이었다. 욥이 상실과 외상 고통 중에 공동체에 원했던 것은 어떤 신학적 가르침이나 신앙적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애가를 경청하는 것이었다.

욥의 경험과 그의 애가는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욥이 겪은 심한 상실과 외상 고통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심한 상실과 외상과 같은 고통을 삶의 여정에서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과 외상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번영이나 고난을 근거로 영적 상태를 함부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욥과 같이 상실과 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애가를 경청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한국 교회 안에는 욥기의 신정론, 몸의 질병, 고통의 신비 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욥기에 나타난 외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욥기에 나타난 욥의 외상과 분노 감정에 함축된 속 울음(mute cry) 등에 대한 이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욥이 심한 상실과 외상 중에 표출한 분노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는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욥과 같이 심한 상실과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표출하는 분노 감정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심한 상실과 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강렬한 분노 감정에는 깊은 고뇌와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표출하는 분노의 표면 감정뿐 아니라 이면과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속 울음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외상을 포함한 심각한 위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왜'라는 질문은 희망의 표지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긴장해서는 안 된다. 이 '왜'라는 질문은 대부분 분노의 표현이다. 교회 공동체는 심한 상실과 외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분노의 감정 체계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분노에는 AHEN의 원리가 있다. 분노(Anger) 이면에 상처(Hurt)가 있고, 그 이면에 기대(Expectation)가 있고, 그 이면에는 필요(Need)가 있다. 심한 상실과 외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분노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대한 표면 감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분노가 일차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불안, 고통 같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 체계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겉으로 표출되는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이고, 진짜 감정은 이면 감정과 심층 감정에 숨겨져 있다. 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표출하는 분노의 이면 감정은 항의, 상처, 불안이고, 심층 감정은 삶의 증언과 치유를 소망하는 감정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심한 상실과 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표출한 분노의 이면 감정과 심층 감정을 이해할 때 깊은 경청을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심한 상실과 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분노는 항의, 논쟁, 고뇌, 의문, 상처, 불안, 수용 같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기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두 말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12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사랑한인교회 (LA 한인타운)
사랑한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와 행정간사를 청빙합니다.
• 파트타임 부교역자 자격: 전도사, 목사
• 파트타임 행정간사 믿음이 좋은 평신도도 가함
접수 및 문의: lovekrch@gmail.com

부활로 통치하시는 ...

〈1면에서 계속〉

신약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우주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처럼 다룬다. 그는 "첫 열매" "생명의 개척자"이다. 그는 첫 번째 인간이 죽은 이후로 잠겨 있던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는 죽음의 왕을 만나서 싸우고 이겼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그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다. 마침내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요한계시록 1:18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신다.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결과 창조물을 다스리신다. 신자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창조물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통치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앞을 보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그의 백성도 이길 것이다.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고(롬 8:1) 따라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요 5:24).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엡 2:1-10; 롬 6:1-14)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다(롬 6:15-23).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은 완성된다. 그때서야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고전 15:35-58)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다(계 22:5). 이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16-17에서 준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by Jeff Brannon, TGC〉

LA 산불이 이토록...

〈1면에서 계속〉

"그러다 날씨가 건조해지고 이 초목들이 빠르게 건조해지면 더 많은 땔감이 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생태학 및 수문학 센터'에서 산불에 대해 연구하는 마리아 루시아 페레이라 바르보사 또한 지난해 습한 날씨와 건조한 기간이 겹치면서 "산불이 퍼지기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했다. 매우 습했다가 건조해지는 날씨 변화를 '수문기후 채찍질(hydroclimate whiplash)'이라고 부른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문기후 채찍질 발생 위험은 대폭 증가했다.

2. '헤어 드라이어' 역할의 산타아나 바람

아울러 LA 서쪽 산간 지역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빠르게 몸집을 키웠고, 건조한 초목을 땔감 삼아 산타모니카 인근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바람은 종종 덥고 건조해 초목이 더 건조해진다. 헤이든은 "산불이 일어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점화, 불길이 태울 무언가, 공기 중 산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빠른 바람으로 인해 이번 화재는 특히 더 강렬했다. '산타아나' 혹은 헤어드라이어 바람으로 알려진 이 바람으로 인해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퍼지게 된다. 헤이든은 "산타아나 바람은 매우 극도로 건조하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서 불이 붙자마자 이 바람을 타고 커지게 되고, 빠르게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돌풍으로 인해 전력 케이블이 망가져 근처 초목에 불꽃이 튀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3. 불티

헤이든에 따르면 이러한 바람은 비단 불길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불티를 옮기는 역할도 한다. 불씨는 산불 발생 시 건물 등 구조물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다. "(도로나 건물 등) 불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존재해도, 불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티는 계속 이동하며 튀어 오릅니다." 바람은 불타는 초목에서 불티가 튀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한다. 이에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새롭게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고, 몇 마일 떨어진 전혀 다른 곳에 새롭게 불이 시작될 수도 있다. 헤이든은 "불티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주택 주변의 틈새나 관상용 초목에 떨어져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보고도 여럿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집 한 채에 불이 붙었다면 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 수십 채에 동시에 불이 옮겨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집안에서 또 불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는 헤이든은 "그렇기에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불씨는 재산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알렉 겔리스는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마치 불씨가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고. 산소가 전혀 없었다"면서 "간신히 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4. 언덕과 협곡 지형

한편 LA의 언덕이 많은 지역도 산불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에 대해 헤이든은 "불은 오르막길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협곡, 계곡과 같은 지형에서는 화재가 매우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진압하기 어려운, 어쩌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피도 더 힘들어진다. LA 시의원 출신인 마이크 보닌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팰리세이즈 지역의 좁은 산비탈 도로로 인해 대피하기 더욱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5. 기후변화

한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헤이든은 "단순히 날씨가 더 더워지거나 건조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서 "습하고, 바람 불고, 덥고, 건조한 기후 등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의 위험 및 심각성은 증가하고 있다. 미 '국립 해양대기청'은 "더운 날이 많아지고, 가뭄이 길어지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등 기후변화는 미 서부 지역의 산불 발생 혹은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 여름이 매우 덥고 최근 몇 달간 강우량이 캘리포니아는 특히 산불에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보통 5~10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시즌에만 산불이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 몇 달은 없다"는 뉴섬 주지사는 "일 년 내내"라고 강조했다.

한줄기 희망의 빛?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의 화재 기상 전망이 '매우 심각'에서 '심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소방 당국에 희미하나마 한 줄기 희망이 있다. 그러나 BBC의 사라 키스-루카스 기상 예보관은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 지역에 비가 오리라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화재 발생 조건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아쿠나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은 BBC 라디오 4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바람이 불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업계에에서는 이번 산불이 미국 역사상 가장 피해액이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불길이 고가의 저택들을 집어삼키며 보험 손실액은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 큰 문제는 LA 도시의 물탱크가 드넓은 지역에 걸친 대형 화재가 아닌 국지적인 화재 진압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 정도 인프라로는 엄청난 양의 물을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먼 거리로 이동하기 힘들다.

〈출처: BBC News〉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목회단상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요즘 우리 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접하는 생소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는 집안 벽에 타일식의 액자를 걸어 두는 일이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자주 심방 할 일이 생겨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가든지 벽면이나 가장 보기 편한 곳에 액자로 가족사진이나 혹은 성구나 그림들이 걸려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원치 않는 듯합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넉넉치 않은 전도사 생활비로 집안을 꾸리다 보니 아마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산 것이 생활 방식이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암튼 결혼 수십년이 지나도록 집안 벽 어느 곳에도 사진이나 그림 액자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해 본 분들은 '무슨 병원에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도 적적하여 몇 년 전에는 선물로 받은 성구 액자를 하나 힘들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집에, 그것도 계단 벽면에 사진 액자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4년 결혼 생활 만에 안사람이 직접 벽에 액자를 거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온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딸아이가 보내준 손주사진과 자신이 유아적에 오빠와 함께 누워 잠자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크게 타일식으로 액자를 만들어 보내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내느냐"고 볼멘 소릴 하더니, 아들이 "이거 벽에 걸어야지"라고 하니 "자리를 찾아보라"며 직접 들고 가서 하나씩 걸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는 것 만도 너무 재미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 구나.' 그뿐 아닙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매일 안사람의 노래 소리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딸이 아이를 낳고 집에 왔을 때 안사람은 매일 수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렀던 걸 또 부르고 안 부른 노래들을 찾아가며 불렀습니다. 찬송가뿐 아닙니다. 어릴 적 어디서 배웠는지 저도 알지 못하는 노래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엇이 수 십년을 지켜오고 생경하기까지 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손주 아이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 사랑은 내리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철들기 전엔 잘 모릅니다. 입으로만 알 것 같다 해도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니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나보다 더 잘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내리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자리마저 내려 놓고 이 땅으로 날 찾아오셨습니다. 내리 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리 사랑의 근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리 사랑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내리 사랑은 약한 곳을 향해 흐릅니다. 내리 사랑은 반드시 다시 돌려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리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돌려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돌려드릴 수 없는 사랑이 날 살게 하고, 살 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니라"(요일 4:9-10)

Word4u@gmail.com

재미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남가주총동문회신년하례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회원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년하례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5년 1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흥장로교회
주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연락처 714-321-4678

학술 세미나 강사

김선중 박사, Th.D.
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
주제: 목회자의 도전과 영광

이정현 박사, Ph.D.
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총장
주제: 올바른 축도론

동문회 조직

증경회장
이정현목사(71회) 윤성원목사(61회)
정고영목사(54회) 윤태근목사(77회)
표세흥목사(75회) 류복석목사(68회)
정종섭목사(79회) 김요섭목사(88회)
임균만목사(92회) 유용웅목사(90회)

자문위원단
정고영목사(54회) 김상규목사(58회)
윤성원목사(61회) 안태문목사(62회)
김삼도목사(63회) 박노철목사(66회)
유응연목사(67회) 류복석목사(68회)
이정현목사(71회) 정완기목사(73회)
정희주목사(75회) 표세흥목사(75회)
윤태근목사(77회) 정종섭목사(79회)
김요섭목사(88회) 유용웅목사(90회)
임균만목사(92회)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이정현목사 (310-749-0577) 수석부회장 김삼도목사 (949-514-4346) 서기 임균만목사 (714-321-4678)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불가원 불가근(不可遠 不可近)

50년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적절하고 건덕을 세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불가원 불가근(不可遠 不可近)이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뜻이다. 목회는 인간관계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무 가까우면 객관성을 잃고 존경도가 무너지고, 너무 멀어지면 친밀감이 사라져서 사랑이 없다고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일 년 이상을 교인 한 사람도 없이 보내야 했다. 목사는 유일한 교인(?)인 아내를 홀로 앉혀놓고 새벽부터 500번 이상의 설교를 해 왔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일 년이 지난 어느 날에 새 가족 1호가 등록을 했다. 목사는 천군천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있는 친절, 없는 친절로 분신처럼 한 가족보다 더욱 친밀하게 대우했다. 1호 교인 가족들도 목사님 가족들을 친 형제 가족처럼 받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목사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교회다운 여건이 갖춰가기 시작했다. 모두 열심을 내어 매시간 참여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1호 가정이 틈틈이 빠지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2호, 3호 가정들이 1호의 자리를 대신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50여 명의 교인이 거의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상한 기류들이 감돌기 시작했다. 친교 시간에는 완전히 두 그룹으로 갈려져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그룹은 교회 봉사에 경쟁하듯이… 치열한 열심으로 번져 나갔다. 담임목사는 이편도 저편도 들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제직회만 열리면 두 그룹들이 치고 받고 말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담임목사는 그래도 100명 선을 돌파하길 득심하면서 최선의 목회를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반쪽이 집단 이동을 하고 다시 50명 선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냉정하게 떠나고 만다. 이민교회가 초창기에 수없이 되돌이를 해왔던 가슴 아픈 현장들이었다. 이민교회 교인들은 사회적 욕구 불충족에 대한 깊은 상처들을 안고 있다. 교회에서… 목사로부터라도 그 욕구를 채우고 인정받고 싶은데 빗나갈 때엔 칼보다 예리하게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다. 이런 목회적 상황에서 목사가 지혜롭게 관계를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한 쪽은 섭섭병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참으로 균형을 잡고 고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불가원 불가근은 어느 편으로도 치우지지 않는 인관 관계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너무 가까워서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너무 친밀해서 존경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존경과 친밀- 이 두 가지가 목회자의 영적 권위인데… 말처럼 지켜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남편 목사는 그런대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도 사모쪽에서 불가원 불가근을 지키지 못해서 편애와 인간차별 비평이라는 뒷말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불가원 불가근을 유지하려는 목사 부부는 늘 외롭고 힘든 자리이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따뜻하지 않다!' '우리 목사님은 편애가 심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그래도 불가원 불가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목회자는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한다. 목사가 인간적으로 외롭다고 따뜻하기 시작하면 오해를 불러온다.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비난해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도…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은 아니지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감동을 갖도록 해야 한다. 참으로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필자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하곤 한다. 예수님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라고 하면 하셨을까? 지혜로운 주님은 제자 훈련만 3년하고 부담 없이 떠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인간관계, 목회의 원리를 터득하셨던 분이셨다. 이민 목회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영혼 깊숙이 간직해야 할 세상 처세에 남겨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으면서 모두를 만족케 하는 '불가원 불가근'으로 새해의 목장들을 힘차게 일궈 가길 축복한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임수병 목사
(필라사랑의교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갈라디아서 6:11-18

오늘까지 나는 이 땅에 과연 무엇을 남기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나의 살아온 날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랑하고(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3C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children, carrier, character.' '자녀들'이 자랑이고,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자랑이고, 자기의 '성격'이 자랑입니다. 자랑을 따라가 보면 내가 남긴 것들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눔을 남긴 사람이라면 사람들 가슴에 감사의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미움을 남긴 사람이라면 사람들 가슴에 상처의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고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관찰하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오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할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 그래서 '흔적'으로 남기려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믿음 외에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12절) 유수한 로마 식민지 가운데 유독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만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막 생겨난 신생 종교이기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할례를 받아서 박해를 피하라 유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할례를 받으라'고 꼬드긴 이유는,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13절) 할례를 받으면 육체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율법의 후손처럼 되는 것이니,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 앞에 자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도 피할 수 있고, 또 육체의 흔적으로 자랑할 수 있으니, 'why not?' '할례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들을 유혹하면서 할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이 땅에서의 박해를 피하는 흔적이지만, 십자가는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하게 되는 흔적입니다. 할례가 '자력 구원'을 상징한다면, 십자가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할례가 '자기의'를 상징한다면, 십자가는 '예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저들은 '육체(할례)로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14절)

십자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바울은 이런 당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14절)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위대하고 고상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도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여서, '너-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 '너-세상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세상이 내게 죽은 것이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거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체의 흔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고로 이제부터 나는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살겠다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17절) 갈라디아 교회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나요? '너도 사도냐' 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사사건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변질시키고 말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게는 너희들이 흔들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란, 예수로 인해 매 맞고, 예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바울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 그 이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흔적'이란 말은 원어로 '스티그마타', 영어로는 'stigma'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문신' 혹은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불에 달군 인두로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개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노예라는 흔적(스티그마타)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스티그마타'는 표준 새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상처 자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 자국'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란, 그의 등에 난 '상처 자국'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상처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나 배, 앞쪽에 난 상처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받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등에 난 상처는 노예의 상처, 죄수의 상처였고, '불명예의 상처'였습니다. 사십에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던 바울, 태장을 세 번이나 맞았던 바울의 등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흔적,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왔을까요? 〈화살과 노래〉라는 시에서 시인 롱펠로우는, 우리는 인생살이 속에서 둘 중의 하나를, 공중에 던지며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화살'이고, 또 하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먼 훗날 우리가 던진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아주 오래 지난 후에, 나는 참나무 속에서/ 화살을 찾았네. 아직 부러지지 않은 그것을/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냈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에 화살을 쏘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화살'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노래'를 남겼을까요?

남겨야 할 것, 오직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바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이 되는 노래를 남기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말을 오히려 정면으로 뒤집는 말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얘기한 것일까요? 자기 등에 있는 훈장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려고 꺼낸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흔적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지, '바울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 하나쯤 없으면 부끄러울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무엇을 남겼니?' 그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들, 예수님 때문에 거쳐야 했던 고생의 눈물들, 그 상처와 흔적들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한 흔적, 예수를 위해 부른 노래를 보여주려고 할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난 못 '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 '자국',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의 그 흔적'을 말이죠. 그리고 그 흔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크고 높으신 분이 나처럼 되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고, 우리는 내 몸에 난 상처들과 내 마음에 난 흔적들을 슬며시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실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18절)

우리가 남겨야 할 것, 그것은 분명히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 때문에 받은 나의 흔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기 자랑으로 망한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인데 '나의 흔적'이라고 자랑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형교회 50개 중 23개가 한국교회라는 자기 자랑,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예수의 흔적이란, 나를 관통하여 뚫고 지나간 예수의 흔적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의 몸을 뚫고 지나간 은혜의 흔적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계집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턱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물으실 때 자기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에게 주님은 '나는 저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의 '흔적'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겼는지, 내 인생의 성적표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장례식입니다. 내가 한평생 무엇을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나는 나의 장례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장례식은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초대받지 못한 주인공일 것입니다. 작년 11월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이 '청룡영화상 시상식'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그날 부른 노래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장례 희망'(Funeral Hope)이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내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익살스러운 내용의 가사입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 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턱시도와 드레스로 차려입은 스타들 앞에서, 내로라하는 기라성같은 배우들 앞에서 이찬혁은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옵고 그 기쁨의 장소로 들어간 자의 감격으로 춤을 춥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았던 예수의 흔적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사자와 친구를 먹고, 나의 영원한 친구되신 그 분과 함께 천국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남길 바랍니다.

colippastor@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실(信實)하신 하나님, 큰 믿음, 큰 은혜

-기도, 겸손, 분별력, 담대함-

큰 믿음 상실의 시대

한 담임목사님이 계셨다. 그는 부 교역자 중 한 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부목사는 장래 비전이 뚜렷해 보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담임목사님은 이 부목사를 후임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교단 법규상 부목사가 곧바로 담임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담임목사님은 부목사를 일본으로 유학 겸 목회 연수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유 들이 꽤 있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귀에 들어왔다. 일본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말씀한 것이다. 일본의 문화는 작은 것, 세밀한 것, 축소 지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목사는 그곳에 적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담대함과 큰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는 차후 담임목회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대의 큰 믿음과 담대함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교회는 위축된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라는 환경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선대의 믿음의 어른들이 탄식하며 한숨짓게 만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형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며, 이런 탄식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위로의 말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새해는 단순히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새해를 주신 이유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성경 속 많은 메시지 역시 이를 강조한다.

새해, 새로운 삶의 기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실패나 고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는 곧 최고의 소망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겠고 유익한 면도 많을 것이지만, 많은 정보를 접하며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심지어 믿음에 장애를 느낄 수도 있다면 무엇인가 결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과하는 앎이다. 이 세상에서는 1+1=2라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정답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1+1=100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할 때 따지지 않는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늘어갈수록 믿음은 왜소해지고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는 최면에 빠지며 부정적인 논리에 매몰되기 쉽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인 한원광 박사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국에 있던 33년 동안 매년 경제가 어렵다는 불평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렵다는 시기에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지금 잘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잘될 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엄살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에 젖어 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쉽게 좌절한다. 그러나 걱정을 멈추고 더 좋은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 영적인 관점

무엇이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성경 속 골리앗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참소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앞에서도, 두렵고 떠는 것 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 절로 육신이 떨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해 보면, 전혀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떨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세상 모든 일들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된다. 실제, 골리앗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영적으로 가져왔더니, 그 큰 위기가 다윗이라는 믿음의 영웅이 출현하는 기회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배운다.

기도와 겸손의 자세

영적인 관점의 전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순하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말씀이 분명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앞에 복종한다.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코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버리실만한 위치를 찾고 구하지 않는다. 환경에 자신을 기투하지 않는다. 환경이 나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결코 위축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당당하고 담대하다.

겸손에서 나오는 분별력

겸손함에서 분별력과 담대함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기에 힘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력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이다.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는 대신, 적절한 시점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가 동네 깡패를 만나도 굳이 실력을 뽐내거나 싸움을 걸지 않는다. 이 선수는 자신이 동네 깡패와 경쟁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별력에서 비롯된다. 삶에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문제를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결과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

복잡한 계산과 의심은 우리의 영적 전투를 어렵게 할 뿐이다.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싸움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에서 온다. 신앙생활에서 담대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 새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기를 소망한다.

새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과 은혜가 아닌, 큰 믿음과 큰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겸손과 기도로,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작년에 성경 1독을 결심했으나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여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꼭 성경 1독을 성공하고자 합니다. 성경 1독을 통해 승리하여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토랜스에서 윤집사가

성경읽기

A: 링컨은 독학의 대명사입니다. 링컨은 정식교육도 받지 않았으나 독학하고 독서의 힘으로 측량기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링컨에게는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책이 없어서 책을 빌리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오면서 가지고 온 책은 '웹스트 사전, 로빈슨 크루소우, 아라비안 나이트'등 입니다. 링컨은 이 책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기와 미국의 역사책들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죽을 때 우유질환(Milk sickness,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생기는 급성질환)에 걸려 병석에 누웠을 때 어린 링컨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곤 하였습니다. 링컨이 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 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링컨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김없이 하루 2시간 가량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성경독서가 링컨의 삶에 놀랍도록 힘을 발휘하였는데 링컨의 삶 발자취를 살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링컨은 숱한 실패를 되풀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 23세에 주의원 선거에서 실패 2) 25세에 주의회 의원 당선 3) 29세에 주의회 대변인에 출마하여 실패 4) 31세에 정부통령 선거위원에 출마하여 실패 5) 34세에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실패 6) 38세에 연방하원의원에 당선 7) 40세에 연방하원의원 재선에서 실패 8) 45세에 상원의원에서 실패 9)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서 실패 10) 49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실패 11) 51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

여기까지의 링컨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까지 그의 경력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주의회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하원의원 한 번 한 것을 빼면 다 실패했습니다. 1승 7패의 사람인 셈인 것입니다. 그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가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 그는 "다시 또 시작하자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러함 링컨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실패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실패했을 때 배불리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하며 다시 힘을 내는 이 행동은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 뿐입니다. 링컨의 대통령 당선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믿어버리는 그의 단순함과 순진함의 승리입니다. 숱한 실패에도 링컨이 좌절하지 않는 힘의 원천이 성경읽기에 있었습니다.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어제(작년)와 다른 오늘(새해)

2024년 12월 31일 어제와 그저 한숨의 잠과 한밤이 지난 아침 2025년 1월 1일은 오늘이 아니라 새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올해처럼 무거운 마음과 어두운 얼굴, 밝고 힘찬 목소리가 아닌 낮은 목소리로 새해 인사를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기는 처음이다. 새해를 앞두고 들려오는 모국의 소식들은 암담하고 참담했으며, 미국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사치로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아픔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어려움들과 또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임하길 원하며 기도한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잘 아는 사자성어 작심삼일(作心三日)은 새해 새롭게 세운 목표나 계획, 단단히 먹은 마음(작심)이 사흘(삼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첫날은 목표를 향해 열심이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 귀찮아지고 삼일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새해를 시작하며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 미루거나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 작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이어리에 써본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작은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글들을 필사하는 것이다. 성경필사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필사하려고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필체가 좋은 3~4명의 학생들은 학급일지라는 한 반의 수업 일과와 출결상황 등을 매일 기록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임선생님께 받았었다. 나도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일지 담당이 되어 순서를 나누어 하루일과를 기록했다. 그런데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펜을 잡는 일이 점차 사라졌고, 어느새 연말 성탄카드와 연하장까지 전화문자나 전자카드로 보내게 되면서 긴 문장을 손으로 직접 쓰는 일은 정말 드물게 되었다. 이제 오랜만에 손으로 카드를 쓰는 일이 생기면 글씨를 쓸 동안 내 스스로가 나의 필체에 어색함까지 느낀다. 필사를 통하여 더 많은 글들을 천천히 깊게 읽으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퇴행한 손근육과 필체도 다시 열심히 키울 예정이다.

현대사회 많은 분야에 SMART 목표 설정 기법이 적용된다.

SMART목표란 1981년 11월 경영컨설턴트 조지도란이(George T. Doran)'경영학 저널'에 'There's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 Goals and Objective' 글이 소개되며 시작되었다. 이 목표기법은 명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데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Specific(구체적인)
Measurable(측정 가능한)
Achievable(달성 가능한)
Realistic(현실적인)
Time-bound(기한이 정해진)

매년 반복되는 작심삼일 실패의 좌절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나만 알지만 약해서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작년보다 조금 더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SMART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향한 의지와 행동을 통해 2025년 한 해가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생활에 스마트한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songjo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베타세대와 같이 걷는 길, 기도에서 리더십까지…교회의 과제

2025년 첫 베타세대가 탄생하며 이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도 본격적인 고민에 나섰다. 베타세대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탄생할 이들을 가리킨다. 호주 미래학자 마크 맥크린들에 따르면 이 세대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을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AI 네이티브(원어민)'다. 이들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동등하게 혹은 가상세계에서 더욱 폭넓게 활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세대 변화 주기가 짧아졌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 동시대에 여러 세대가 공존하게 됐다"며 "삶의 방식이 다른 세대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겪는 큰 어려움은 다음세대의 은혜받는 방식을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인정하고 그들이 온전히 독립된 체계와 정책을 가진 '교회 안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성세대가 아닌 직전 세대가 그 다음세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다. 최 박사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 때 그들의 지도자는 직전 세대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알파세대(2010~2024년 탄생)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MZ세대가 돼야 한다"며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직접 이끌기보다는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세대를 신뢰하고 그들의 규칙을 존중한다면 교회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기독연구소 라이프웨이리서치 연구 저자인 에이미 조 지라르디에 목사도 라이프웨이리서치를 통해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환영할 수 있는지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은 '①하나님께 베타세대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지 알려달라고 묻는 것 ②베타세대를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 ③기도하는 것 ④베타세대가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에이미 목사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때 우리는 이들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기대하며 질문을 던진다"며 "이전에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첫날 예배 드리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교회는 어떤 곳?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가 오는 18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해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이곳은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취임식 당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세인트 존스 성공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백악관 맞은편 라파예트 광장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는 1816년에 설립됐다. 백악관과 가까워 미국 대통령들과 정부 관리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1809~17)을 시작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들은 이곳에서 취임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에 참석해왔다.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 속에서도 매일 저녁 교회 기도회에 참석해, 국가의 화합을 간구하며 기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내 54번 좌석은 현직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자리다. 약 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초기에 좌석을 임대 방식으로 운영했다. 매디슨 전 대통령은 28번 좌석을 자신의 전용석으로 선택하며 '대통령의 의자'라는 전통을 만들었다. 교회는 그에게 좌석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매디슨 대통령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했다.

1843년 교회 개조로 '대통령의 의자' 번호는 58번으로 변경됐다. 당시 존 타일러 전 대통령은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이 좌석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했다. 1883년 추가 개조를 통해 의자 번호는 54번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할 때 사용하는 좌석으로 지정됐다. 1966년 미국 내무부에 의해 역사유적지로 등록된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설계한 저명한 건축가 벤자민 헨리 라트로브가 설계했다. 그리스 부흥 양식(5세기 그리스 사원을 기반으로 한 건축 양식)과 독특한 노란색 외벽이 특징으로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손꼽힌다.

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이 교회 종을 구입하기 위해 공적 자금 100달러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 종은 교회 주변 동네와 공공건물에 경보종으로 사용됐다.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등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예배가 드려진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 국가적 비극의 순간마다 이곳에서는 추모 예배와 기도회가 열렸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도의 공간으로 활용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적 결정을 앞둔 중요한 순간마다 이곳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국가의 안녕과 화합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 오늘날에도 전직 대통령들과 국민이 세인트 존스 성공회교회를 특별한 의미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 예수 부활 이야기로 새롭게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12시간을 그리며 전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감독 멜 깁슨)의 속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제작된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1995) '아포칼립토'(2007) 등으로 잘 알려진 스타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에서 "2026년 촬영 시작을 목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속편 제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품은 '그리스도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3일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3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돼 6억1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종교 영화로 기록됐다. 개봉 당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예수의 모습과 처형 장면이 극사실적으로 묘사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관객 253만명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멜 깁슨은 작품을 위해 브레이브 하트의 각본을 맡았던 작가 랜달 월러스와 7년여간 시나리오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젤이 속편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작품 속 시간으로는 십자가 사건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배우의 외모를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디에이징(de-aging)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360)907-7271 blescollc@yahoo.com
3906 Country Club NW, Olympia .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 213 – 1200 (254) 658 – 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6. 임준호 (1874-1974)

임준호(任俊鎬)는 1874년 10월 6일에 서울에서 태어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 대학부에 다녔다. 그때 우남 이승만이 급우였다. 그는 28세에 19세의 부인과 결혼하여 딸 봉순을 낳고, 서울 정동에서 거주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30세에 그는 아내와 한 살 된 딸 봉순과 함께 두 번째 하와이 노동 이민선 코리아 선박에 승선하여 1904년 9월 5일에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로마글자로 Im Choon Ho 또는 Lim Choon Ho로 적었다.

임준호는 가족과 함께 에와 농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빼어난 영어 실력으로 현장 감독이 되었고, 농장 진료소에서 통역을 맡았으며, 노동 계약 중개인을 역임했다. 1906년 12월 2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진회가 조직될 때 민찬호, 이내수, 임정수 등과 함께 임준호도 함께 했다. 본 회는 하와이 교포의 자치, 민족의식 고취, 생활 개선, 전문문화 수호를 목적했는데 이후 인재 육성과 독립운동 자금 확보까지 넓혔다.

하와이에 온 지 7년이 되던 1911년에 임준호는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로부터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임지는 가와이섬 동부의 가파, 기알리아, 길나위아로 지정된 가파 순회 구역과 리휘와 하나마울루로 지정된 리휘 순회 구역이었다. 그가 파송된 때 가파 순회 구역에는 세례교인 1명과 학습 교인 12명이 있었고, 예배당이 한 곳에 있었으며, 리휘 순회 구역에는 세례 교인 75명과 학습 교인 78명이 있었고, 예배당이 두 곳에 있었다.

임준호는 1912년에도 가파와 리휘, 두 순회 구역에서 노동하는 한인 노동자를 전도하는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 산하 한국어권 총무까지 역임했다. 그는 1913년에도 위의 두 순회 구역을 위한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러나 가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가파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교회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12월에 리휘에 융동 학교를 신축하였다. 부근 3, 4곳의 농장에 흩어져 있는 한인 어린이를 위하여 농장 집 한 칸을 빌려 가르쳤는데 협착하여 교장이었던 임준호가 300달러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농장 주인과 웰컥스 부자가 다소간 보조하였고, 백인 부인 이샌벅은 50달러를 기부하였으며, 하와이 선교연회에서는 10달러를 후원하였다.

1914년에는 임준호가 오아후섬의 에와/와히아와 구역 순회 전도사로 파송되었고, 이듬해인 1915년에 집사 목사 곧 준회원이 되어 에와/와히아와 구역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 에와/와히아와 구역에 세례교인은 27명이었고, 학습교인은 13명이었고, 1,00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1920년에 에와 인근의 와이파후에 한인감리교회를 개척하였으나 1922년에 이곳 한인 노동자가 이동하여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

임준호의 열심에 감동한 백인 퍼시 폰드가 기부한 땅에 임준호는 1923년에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을 세웠다. 그는 1925년까지 에와/와히아와 순회 구역을 섬겼다. 그해 유아세례교인이 8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1명이었다.

1925년 1월에 정원명, 강영호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할 때 현 순, 정봉관 등과 함께 임준호가 이사부원으로 선임되었다. 위의 후원회가 단산시보를 발행한 그해 5월에 한국에서 6, 7년간 교육에 종사하던 이귀봉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는데 누아누 청년회 종교부 주최로 이귀봉을 초빙하여 임준호의 사회하에 환영하고 그의 연설을 들었다. 그해 8월에 1만 달러로 건설한 호항 한인 미국 감리교 학생기숙사를 가을 개학 이후 확장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이사부 임원으로 임준호가 선출되었다. 그달에 정월라가 주장하여 미국 감리교 주일 학당이 매우 성장하였는데 임준호도 교사 중 한 명으로 가르쳤다.

임준호는 1926년에 마우이섬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우이섬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라나이, 부네네, 라하이나, 하나에 각각 교회를 세웠다. 1927년에도 마우이섬 스프레클스빌 지역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1927년에 임준호가 평안북도 선천 대동 고아원에 얼마의 기부금을 보내 모국을 위한 사랑을 표했다. 1929년 3월에는 독립 원조를 결의하고 이환일이 회장이 되고, 박기홍이 서기가 되고, 총무에 임준호가 선정되어 한 명당 매끼에 쌀 한술씩 모아 조국 독립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929년에 4월에 임준호는 한인교회보 마우이 지사원을 역임했다. 1권에 20센트였고, 반년 구독에 1달러 20센트였으며, 1년 구독에 선금이면 2달러였다. 그해 6월에 부네네 교회와 엡웟 청년회가 합동하여 해변 소창회가 있었는데 간략한 예배에서 임준호가 설교하여 청중이 크게 감화를 얻었다.

1930년 1월에 대한 독립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정부로 중력을 집중하고 최후 1인 최후일각까지 분투하기로 하고, 하와이 한인협회를 조직하였다. 임준호 외 28명이 발기하여 임시 위원장에 조용하를 선정했다. 1932년 1월에 교민 총단장 손덕인의 사회로 제12회 통상 의사회를 열고 총단장의 통유서를 낭독한 후 무궁화 1절과 임준호의 기도로 개회하였다. 이날 부네네 의사원으로 임준호 등 11명이 출석하여 의사회를 조직하였는데 의사장에 강영효가 선정되었다.

'감리사 푸라이 박사가 1933년 5월에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다. '어머니의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윤호 전도사가 통역하였는데 교인이 크게 감화받았고, 설교 후 최일복 부부가 두 아들 로버트와 겔노드를 안고 강단으로 나가서 감리사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후 제3장을 일제히 부른 후 폐회하였다.

1934년은 다양한 일이 일어났다. 파이아 제당회사 실험실에서 다년 근무하면서 교회를 크게 돕던 오용운이 1934년 5월에 득남하였는데 아기도 충실하고 산모도 건전하였다. 브네네 제1동 교회가 예배당이 퇴락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는데 300달러나 들겠다면서 농주가 그 절반을 후원하였으나 한인이 낸 기부금이 60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임준호가 백인 친구에게서 90달러를 기부받아 그해 7월에 수리할 수 있었다. 그해 가을에 함호용 전도사의 차녀 점순이 호항 천주교 간호학교에 입학하였다. 그해 10월 주일 오후 3시에 위닝 목사 내외와 프라이 감리사가 브네네 제1동 교회를 방문하였으므로 원근 각지에 있던 70여 명의 교인이 모여 환영회를 개최하였고, 그날 위닝 목사가 '천연적 물질의 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설교하였고, 예배 후 목사실에서 만찬을 나누었다. 그해 11월 첫 주일에 임준호가 라나이 교회를 방문하여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였고, 김현구의 자녀 홍주와 홍우와 홍의, 김성수의 자녀 명규와 웅애, 최영기의 자녀 춘실과 헌실과 헌백, 이경재의 딸 귀태, 정응선의 아들 귀영과 제아이너, 총 10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그해 한인교회보 11호와 12호에 임준호가 아래와 같은 "신랑이 오신다"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였다.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신부라고 가르쳤습니다... 시집갈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에 적당한 예비가 있어야되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상 설비도 있어야 하겠고, 둘째로 행동 범절이 신랑의 요구하는 이만큼은 되어야 하겠으니... 신부 에스더가... 규례를 다 배워... 택함을 입었으며... 등불을 예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여 잔치에 들어 갔고...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잔치도 갖추어진 모양인데 오직 신부만 예비가 부족한 듯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 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하셨습니다... 근래에는 세상 사조의 풍파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상 성곽이 파괴되어 전후 잡탕스러운 오락 등 교회마다 충만하여져서 진실한 신자들은 오히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 축으로 밀쳐버리고 마는 도다. 그러한 고로 교회는 점점 쓸쓸하여지며 감동될 만한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터이며, 많은 무리가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 무슨 주의, 무슨 주의하며 불합한 주의자로 심지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서 어두운 사람들의 정신을 현황케하는도다. 반성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고로 마땅이 정신을 차리고 존절히 함으로 기도하라 (벧전 4:7)... 쇠는 동록이 삼기고, 나무는 좀이 삼키며, 사람은 교만이 집어삼킵니다. 온유한 자는 복있는 자로다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오, 의를 사모하기를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듬해인 1935년에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는 지난 몇 년과 같이 1월 첫 주일에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여 첫 이틀간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다음 이틀간은 애인 여기기의 도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이틀간은 교회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달 6일에 프라이 감리사가 라나이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근

에와 한인감리교회 (1914년)

300명이 모여 교장 최영기의 인도로 화환을 걸어 환영을 표하고 주일 오후에 사무회로 모여 최영기를 책임전도사로, 김정석을 부전도사로 선정하였다. 그날 저녁에 한인과 백인이 함께 모인 만찬회에서 감리사가 4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건물을 얻어 주고, 의자도 사놓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우태형은 풍금을 기증하여 신년 벽두에 큰 은혜가 넘쳤다.

그해 3월에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 콜스택 박사와 호놀룰루 기독청년회 총무 윌키와 감리사 프라이 박사 내외가 방문하여 저녁 7시 반에 제1동 한인감리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했다. 100여 명이 모여 감독의 설교를 들었고, 설교 후 감독은 한국인의 신앙심에 관하여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인은 금강산과 같이 고강 정숙하여 비록 질풍 악우와 같은 험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조금도 뒤돌아서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 알게 되었지만, 한인은 어려서부터 태산 같은 중책의 짐을 지고 목적지에 기어코 도달하려고 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단아하게 단장한 예배당을 볼 때 감동하였다.'라고 말했다.

임준호가 그해 9월에 흉복증으로 브네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차도가 있어 귀가한 가운데 가족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다.

1941년 9월에 임준호가 하나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고 설교하였다. 흩어져 노동하던 한인 동포 수십 명이 출석하여 하나님 말씀에 갈증 난 사람 같이 말씀을 청종했다. 그들은 임준호에게 자주 심방해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길이 험하고 너무 멀어 발걸음이 어렵겠다고 걱정하였다.

임준호는 휴직한 지 3년 후인 1946년에 오아후섬의 와히아와 감리교회 한어부 설교 목사가 되어 2년간 섬겼고, 1958년에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3년간 섬겼다. 1967년에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에서 임준호는 은퇴했다. 은퇴한 지 7년이 되던 1974년 4월 21일 주일에 호놀룰루에서 향년 10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놀룰루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다. 그는 네 아들과 여섯 딸과 22명의 손자와 14명의 증손자를 두고 홀연히 하늘로 갔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05
주일2부 예배 : 오전 9:05
주일3부 예배 : 오전 11:05
주일4부(젊은이예배) :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 (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회중: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11:30
수 요 예 배: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 칼빈의 영적인 순례

8. 다시 제네바에 돌아온 칼빈

3) 잘못된 비난과 소문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재산에 관해 조소 섞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칼빈이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라고 떠들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칼빈이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고 악평했다. 베자(Beza)는 칼빈이 부를 축재했다는 비난을 일축하면서 그가 오히려 빈핍했던 것을 말하고 있다. 베자는 칼빈을 중상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난들을 다시 한 번 열거하면서 일부 비평가들이 "칼빈 자신도 새로운 교황권을 열망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칼빈이 지향했던 삶의 양태, 공화국 또는 교회는 이른바 '가난의 공화국'인 것이다"라고 언명했다.

그들이 그토록 시기하던 권력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칼빈은 언제라도 기꺼이 그 권력의 일부일지라도 그들에게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표현한다. 그들은 칼빈을 늘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일거리들을 마치 하나의 '왕국'처럼 오해하고 있었다. 칼빈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해주지 못한다면, 칼빈은 자신이 죽은 뒤에는 틀림없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칼빈은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상은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그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중들이란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흑과 백을 혼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불순함과 방종을 가장 훌륭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이란 그리스도의 종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쾌락만을 추구하는 부류들도 있었다. 칼빈은 이 부류에 관해서는 다윗마저도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다고 한다. 칼빈이 말하는 쾌락주의자들이란 다만 식탁의 식도락가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보고서들을 가지고 윗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4) 루터파들의 공격

칼빈은 그 같은 공격을 참아내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 일에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그 같은 사람들의 모욕이 점점 커져 가면 갈수록 칼빈은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이외에 문제는 또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실하게 사랑하는 자들로서 교회 내부에 있는 적군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를 먹는다는 그들의 조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칼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공공연한 적들보다 더 맹렬히 칼빈을 공격해왔다.

여기서 칼빈은 다윗이 고백했던 불만을 이들을 향해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시 120:7).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적인 존재들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곧 드러난다. 그들의 공격대상은 그들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이 한 움큼이라도 인간성이 있는 자들이라면 칼빈 자신을 향해 그토록 강렬하게 도전해오는 교황주의자들의 열화와도 같은 공격이 어느 정도는 약화되었을 것이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도 비슷했던 것처럼 다윗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다윗은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주었다고 토로한다. 칼빈은 나를 보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증오를 받아야 했을 때 내가 당한 어려움을 다윗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칼빈은 빈번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증거를 말하다가 시편으로 돌아가 다윗의 말을 인용한다. 이것이 이른바 칼빈의 다윗을 본받음(imitatio Davidis)이다. 바로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칼빈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시편은 낯선 땅을 방황하는 칼빈을 붙들어 주었다. 사실상 칼빈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면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마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칼빈의 주석들이 비 논쟁적이고 매우 목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책, 『칼빈의 경건』이 이후에 그가 원하던 바를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글을 솔직하고 정당하게 판단함으로 후대에 우리가 그의 책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글을 쓴 목적도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칼빈은 매우 단순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허식을 다 배제하였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도 삼갔다. 그는 그의 책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침묵하였고 독자들이 크게 의심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반대의견을 다루었다고 쓰고 있다.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는 것이었다. 칼빈은 이 일을 할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당한 결과까지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청결의 기준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깔끔을 떤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렇게 깔끔 떨어서 네 마음에 맞는 남자가 어디 있겠니?" 하시던 생각이 난다. 나는 특별히 음식과 연결된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싫어했던 것 같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챙기던 엄마의 성품 때문인지 우리 집에는 오빠 친구들도 들락날락했고 사촌 오빠도 와 있었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지방에 사는 외가 쪽 친척이 일년 정도 같이 살기도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찌개를 덜어 먹지 않고 냄비에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는 것이 싫었다. 식사 때 쩝쩝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싫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나무라시며 깔끔 떨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아마도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얹혀사는 사람에게 눈치주지 말라는 마음이셨을 것이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었던 것은 좀 봐줄 만한 일인 것도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엄마 말처럼 내가 다른 일에도 깔끔을 떨기는 했다.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언니들이나 엄마에게 혼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는 작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왔다. 요즈음 말로 가출을 한 것인데 자존심은 있고 꼬마가 갈 곳이 없으니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엄마나 언니들이 찾으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싸 들고 나온 보따리 안에는 며칠동안 갈아 입을 속옷과 양말이 들어 있어서 언니들은 내가 어릴 적부터 유난을 떨었다고 말한다. 나도 집을 나서기 전에 속옷을 챙기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다른 집 부엌 살림을 보면 저장용기의 패킹부분에 끼인 까만 때, 식기 건조기 밑의 물 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다른 사람 살림은 못 본 척 하지만 한국에 있는 언니 집에 가면 언니가 무안하지 않을 만큼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 막상 우리 집 살림은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주변을 잘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청결의 기준은 다르다. 어느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는 주로 음식이나 위생에 연결된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건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못 참기도 한다. 오래전 같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은 면봉이 본인의 청소 필수 도구라고 했다. 그 분의 청결의 기준에 기가 질렸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가족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오시게 되었다. 그 때는 박사과정 학업 중이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하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목사님의 기준에 맞게 화장실 싱크 주변을 면봉으로 꼼꼼하게 청소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각자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의 청결의 기준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저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뿐 우리 삶에 그다지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바른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찬송가 가사처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하지는 못 할 것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기준에 맞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비판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 혼자서 깨끗한 것처럼 마음의 깔끔을 떨 일은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linda.pyun@itsla.edu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l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추억을 남기는 순례자

현재 로스엔젤레스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1월 11일까지 안타깝게도 16명의 사망자와 1만 2천채의 집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일 전세계의 미디어에서 LA의 산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뉴스를 들은 지인들로부터 전화나 쇼셜네트워크로 안부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화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안전하다는 대답과 함께 염려와 걱정에 감사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튼 산불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에서는 편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민자에게 있어서 집은 자신이 이민와서 일군 전부일 수가 있고, 지난 이민 생활의 깊은 추억이 든 처소일 수가 있습니다. 부촌 지역인 팰리세이드 산불로 인해서 대피령을 받은 성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대피령을 받고 집에서 무엇을 챙겨서 나와야 할지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아무리 가득 실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귀중품들과 함께 사진첩만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저장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찍어 놓았던 사진들이 불타서 재로 남게 되면 자신의 지난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사진첩들을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추억이 있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깊은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내게 심한 피해를 가져다 준 일, 내게 끔직한 상처를 입힌 사건, 내게 도움을 준 사람, 내게 성공을 가져다 준 일, 내게 소망을 품게 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잊고 싶은 추억이든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든 우리는 자신만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나는 잊었지만 누군가는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 속에 추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어릴적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친구에 대한 자신만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 속에 기억되고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억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의 기억 속에, 친구는 친구의 기억 속에, 성도는 성도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고 싶은 추억의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고 간직 되어지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화마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남겨진 추억, 남겨질 추억이 잊혀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억되고 남아 있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예수의 흔적을 보고,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고, 예수의 흔적을 추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하나의 추억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yosupbois@gmail.com

지금은 기도 할 때!…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 열린다

"온 세계 속에 교회여 일어나 기도의 깃발을 들자"

다민족연합기도운동,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고 교계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1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와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14일 오전 10시 30분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개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좌로부터 최청학장로, 강순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재권 장로, 진건호 목사)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공동대표)는 "한국이 지금까지 지내오며 위기가 많았다. 그때마다 기도가 있었다. 6.25사변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뺏기는 수모를 겪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들에게 기도를 당부했다.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이념대결로 국제사회의 염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미국도 국제 외교의 방향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LA산불 진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이기에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자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순영 목사(다민족연합기도대회 운영위원장)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다. 온 세계 속에 교회가 일어나 기도의 깃발을 들어주길 원해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시화 이사장 김재권 장로는 "언론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계 움직임이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홍보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월 31일(금) LA와 OC 두 곳에서 개최되는 기도회는 '대한민국을 살려 주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 '미국이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소서', 'LA가 화재를 극복하고 새롭게 하소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 LA지역 기도회는 사회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설교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환영인사 송정명 목사, 축도 최학량 목사가 맡았으며 기도 인도자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샘신 목사(남가주교협회장)목사다. 기도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323-578-7933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평강교회 44주년 설립기념 주일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평강교회 44주년 설립기념 주일예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되길"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는 44주년 설립기념 주일예배를 5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했다. 송금관 목사는 "오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기까지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며 "지난 44년이라는 세월동안 교회를 섬겨 오신 성도들과 새롭게 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은성 장로가 기도했으며 안용대 목사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송금관 목사가 '예수를 초점하자(히 1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윤준용 목사 축도로 마쳤다. 평강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은혁 권사(96세)는 "우리교회가 개척을 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예배처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고 식사도 하기 어려워 커피와 다과로 식탁교제를 대신했었다"며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장소가 마련되었을 때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었다"고 말했다.

김 권사는 "예배처소가 마련이 되었던 때가 얼마 전 같았는데 4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감격스럽다. 평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신년감사예배에서 사역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신년감사예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2025년도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새해에 일할 사역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9일(목)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소망 홀에서 신혜원 사무장의 사회로 열린 신년감사예배에서는 송정명 목사(성시화 운동 대표 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용장영 목사(실비치 레저월드 커뮤니티교회)가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용 목사는 "소망소사이어티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금년 봉사해줄 봉사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소망의 노래'를 합창한 후 정영길 목사의 축도로 신년예배를 마쳤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창립 이후 지난 17년 동안 물이 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꾸준하게 펼쳐왔고 약물 중독자, 치매 환자, 간병인 지원 사업,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도 곧 오픈할 예정으로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임봉대 총장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실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9일(목) 오전 10시 나성동산교회에서 열렸다. 임봉대 총장은 "총장이라는 큰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미주자치연회 권덕이 감독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총장으로서 학교를 위해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에서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헌영 부총장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 1부 예배는 오정택 교목실장 기도, 이태훈 학생처장 성경봉독에 이어 임봉대 목사가 '줄 터이니 준비하라(사 54:2-3)'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봉대 목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는 대한민국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첫걸음이었고 14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우리도 그 열매중 하나"라며 "그 기도가 2025년 세계선교와 신학교육에 대한 헨리아펜젤러 대학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면 헨리아펜젤러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이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일을 감당하도록 기회와 시간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이임식은 임봉대 신임총장이 이임하는 정인호 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정인호 총장이 이임사를 했다. 이어 권덕이 감독(미주자치연회), 이희학 목사(목원대 총장), 신동욱 목사(협성대 총장대행), 이현식 목사(11대이사장, 진관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뒤, 권대설 헨리아펜젤러대학교 학우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이날 이취임식은 최성범 목사(남가주지방 감리사) 축도로 마쳤다. 임봉대 총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미국 버클리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독일 카이저스라우테른 교회, 미국의 목양교회와 희망찬교회를 담임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 '성경의 식물들' 등에 관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했다. 저서로는 〈사사기-혼돈시대를 극복하는 믿음〉, 〈UMC 2009 속회공과〉, 〈교회력에 따른 구약주석, 시편주석〉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CMF 선교원 신년 감사 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신년 하례 및 감사예배가 지난 1월4일(토) 정오에 CMF 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철민 대표의 사회로 열린 신년 감사예배에서는 오현승 간사가 '가장 귀한 삶'이란 제목의 첼로를 연주하고 김인철 목사(가나안 장로교회) 기도, 엄영민 목사(캄보디아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총장) 설교로 진행됐다. 엄 목사는 '가장 귀한 삶'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한해 우리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햇빛처럼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박신욱 선교사(SEED 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강순영 목사(JAMA 원로 대표)와 박수웅 장로(CMF이사)의 축사가 있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CMF선교원 신년감사예배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교회, 미주통일선교집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1월 22일(수) 오후 8시에 "나는 소리입니다! (I AM A VOICE)"라는 주제로 미주통일선교집회를 개최한다. 뉴욕장로교회를 시작으로 △1월 23일(목) 오후 3시: 콜롬비아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통일포럼 △1월 24일(금) 오후 7시: 뉴저지한인연합집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목사)에서 △1월 26일(주일) 오전 9시와 11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미셸리 목사) 주일예배 △1월 26일(주일) 오후 5시: 워싱턴한인연합집회,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1월 28일(화) 오전 11시: 백악관 앞에서 워싱턴통일광장기도회가 열린다.

▲ 문의: 718-706-0100

뉴저지초대교회, BLESSED 컨퍼런스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미주 최대의 차세대 사역자를 위한 집회로 BLESSED 컨퍼런스가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1월 26일까지 등록하면 $10이며 이후는 $20이다.

▲ 문의: Karen Oh 전도사 201-245-2557

뉴욕가정상담소, 2025년 봄학기 무료 영어 및 컴퓨터 수업 개강

뉴욕가정상담소(Economic Empowerment Program, EEP)가 2025년 봄학기를 맞아 무료 영어 수업과 무료 컴퓨터 수업을 제공한다. 이번 학기는 2월 3일(월요일)에 개강하며, 1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등록마감일은 1월 29일(수)이며 수강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메일: eep@kafsc.org

▲ 문의: 917-887-9173

예배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브루클린한인회, 미주한인의날 감사예배 드려

"2025년을 청교도신앙으로 출발하자"

미주한인이민 122주년 기념, 미주한인의날 감사예배가 1월 12일 주일 오후 4시 브루클린제일교회(이윤석 목사)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브루클린한인회(회장 박상원)이 주최하고, 세계한인재단과 한국계미국시민협회 등이 주관하여 열렸다.

1부 예배는 사회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 브루클린한인회 지도목사), 기도 손경동 장로(브루클린제일교회), 설교 이윤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윤석 목사는 "청교도 신앙(디모데후서 3:16-17)"을 제목으로 전한 설교에서 이윤석 목사는 "1620년부터 미국정신을 지배해온 청교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이 성경적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 들려 쓰임받는 이민자와 다음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전했다.

2부 감사식순에서는 박상원 회장(브루클린한인회장, 세계한인재단 이사장)의 인사와 하세종 회장(세계한인재단 한미국화연합회)의 격려사 후에 이윤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목사 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수)	Special Blessing Event MT
2(목) 오전	World 기독교총연합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장소 : 양주시 시온수양관(원장 정입분 목사)
3(금) 오전	의정부 주님의교회(임수연 목사) 010-7721-2286 주최 : 地宣協 (이사장 강영준 목사, 대표총재 안창남 목사)
4(토) 오전	Tent Makers Mission(대표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연합신년하례성회(장소 : 서울 여전도연합회관)
5(주) 오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김대성 동문회장 취임- 동영상 축하메세지)
5(주)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총회장 박승식 목사) 신년축복성회 장소 :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010-2009-7272
6(월) 오후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수 목사)010-3065-7825 주최 : 작은자섬김선교회(대표회장 양유식목사)
6(월)~7(화)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9(목)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춘 목사) 총회 및 신년하례 장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010-5372-1691
9(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산상축복대성회 041-852-2211
10(금) 오전	국민일보 국부협 신년하례 및 기도회(총재 고충진 목사) 010-3899-0691
11(토) 오전	부천천광교회 주최 :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13(월) 오전	오산리최자실기념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총연합(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4(화)~18(토)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Thailand
19(주) 저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김대성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예배
20(월) 오후	서산 (주)대한건설(대표 최종운) 010-5422-3705 주최 :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21(화)~22(수)	능력선교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22(수) 저녁	연세대학교 연부협(총재 강영섭 목사,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010-3443-1541 장소 :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23(목) 오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신년하례회 장소 : 서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24(금) 오전	꿈너머꿈교회(김현수 목사) 010-7667-4719 주최 : World 기독교 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김현수 목사)
24(금) 오후	서울한영대학교 7층 대강당 (주최 :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 국민일보(주)
25(토)	Special Blessing Event MT
27(월)~29(수)	새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구정축복성회 010-4586-8642
30(목) 오전	서울 성광교회 주최 : 요한선교회(단장 김동진 목사) 010-7293-3217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마친 후 기념 촬영했다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세대 + 1.5세대 = 2.5세대 할렐루야 대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영행 목사)는 1월 12일(주일) 오후 5시 DMOS Manor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한인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새해를 맞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나눴다.

허연행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회와 교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큰 가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작은 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섬기고자 한다. 특히, 할렐루야 대회에서는 1.5세 강사들이 전하는 말씀과 젊은 세대의 공감을 자아내는 찬양팀을 통해 은혜로운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장로 총대권 회복과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을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합을 이루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종명 목사(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경배와 찬양과 함께 뜨거운 합심기도로 진행됐다. 이어 김영환 목사(수석협동총무)가 기도를, 송윤섭 장로(이사장)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의 은혜로운 찬양 후 이풍삼 목사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단 5:25-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고 달아보실 때 바른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1년 뒤 신년하례식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헌금찬양은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이 헌금기도는 송정훈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했으며, 신년감사예배는 김용걸 신부의 축도로 마쳤다.

주효식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신년하례식은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시무기도로 시작됐다. 축사 뉴욕한인회장 김광석, 뉴욕주상원의원 존 리우, 연방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주하원의원 론김이 전했다. 프라미스 청소년 난타팀의 '진군의 북소리'은 신년하례식의 뜨거운 울림을 선사했고 앙상블 메누하 (테너 박종현, 피아노 양지혜, 첼로 진은애, 바이올린 진요셉)의 '거룩한 성'의 찬양은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회장 허연행 목사는 이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목회자상, 공로상, 평신도상을 시상했다. △목회자상 황동익 목사, 최창섭 목사 △공로상 이조엔 목사 △평신도상 최문섭 장로, 이은숙 권사에게 각각 수여했다.

이날은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시 시작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다짐과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홍현숙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로칩과 다가오는 미래' 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세상 속 교회의 사명과 준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권혁천 목사) 청소년지도부는 1월 13일(월) 오후 7시30분, 주안에교회(담임 임영건 목사)와 줌(Zoom)을 통해 '뉴로칩과 다가오는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병섭 목사(뉴욕선교로교회)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강사는 주안에교회의 담임 임영건 목사가 맡았다. 임 목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 교회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다가올 미래와 관련된 5가지 주제를 다루며, AI, 로봇, 코인 정책, 뉴로칩 등이 사회와 교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임 목사는 특히, Neuralink사가 지난해 말 두 번째 인간 실험에 성공하며 AI에 대항할 광대역 뉴로칩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기술은 외부에서 인간의 생각을 읽거나 뇌에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미래를 열고 있다고 제시했다.

임 목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신성의 충만한 자리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뉴로 칩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세상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언 1장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또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급박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했다. 세미나는 임영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로칩과 다가오는 미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노회 신년하례예배에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KAPC 뉴욕노회, 2025 신년하례예배 드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2025년 신년하례회가 1월 14일(화)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정기태 목사(새벽별주님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 부서기 박병섭 목사(뉴욕선교로교회), 성경봉독 신동기 목사, 설교 노회장 임영건 목사(주안에교회), 새해 인사 뉴욕시찰 임병순 목사(뉴욕주은혜교회), 동시찰 이규본 목사(주비전교회), 서시찰 박병섭 목사로 진행됐다.

노회장 임영건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에베소서 3:14-21)"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2025년 새해에 모든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 사도바울이 모든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함을 경험했듯이 세상의 헛된 겉사람이 아닌 성령충만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충만하며 강건해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임재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노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 인사에서 뉴욕시찰 임병순 목사는 "어려운 일들이 한국과 미국 LA에서 일어나고, 노회 목사님들의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리라 믿는다"고 인사했다. 동시찰 이규본 목사는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건강하십시오. 샬롬!"이라고 인사했다. 서시찰 박병섭 목사는 "2025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교회가 크던 작던 아무 상관이 없이 새해에 늘 함께하는 우리 뉴욕노회와 시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직전총회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친 후 노회원들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제15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마친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15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역, 회기 깃발 대신 성경책으로 전달'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송정훈 장로)는 1월 11일(토) 오후 3시 뉴욕새교회(이명삼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제15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이주수 장로(선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성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가 기도하고 최재복 장로(재정부회장)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이어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의 특별찬양과 허연행 목사(뉴욕교협회장)가 설교했다. 허연행 목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창 14:50-52)'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간직해야 할 것은 지키라는 지혜가 담겨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에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시유 교수의 플루트, 클라리넷, 색스폰의 아름다운 조화로 헌금 특주의 경건함과 은혜를 더했으며, 헌금기도 최원호 장로(항존직사명자컨퍼런스 준비위원장)와 이명삼 목사(뉴욕새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은 김일태 이사장의 사회와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성가단 단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전 회장 황규복 장로는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 회장으로 섬기며 세대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뉴욕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애쓰는 장로연합회가 있고,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의 본질이다. 이제는 총무로서 장로님들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송정훈 장로는 취임사에서 "오늘 함께 사역해 온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 앞으로 15기 임기동안 우리 장로님들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후원, 그리고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기 깃발을 성경책으로 대신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장 송정훈 장로는 다민족선교대회에 큰 공헌을 한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남형욱 장로가 이를 대신 수령했다. 이어 예배부회장 배상규 장로와 홍보부회장 김재관 장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임원진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미션콰이어의 축하찬양에는 취임한 송정훈 장로도 함께 참여하여, 예배의 은혜와 감사를 더했다.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축사와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직전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LA산불 피해로 한인교회 피해소식 전해져

"긴급 구호물품으로 마스크와 담요 구입 전달"

LA서부 퍼시픽 팔리세이즈에 팔리세이즈 산불, LA동부 알타디나와 패사디나 쪽으로 이튼 산불, LA북부 실마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 등 동시다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지역 한인교회들에도 피해소식이 전해졌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특새기간이었던 1월 7일(화) 저녁부터 정전이 되어 8일(수) 새벽 집회를 열지 못했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회와 저녁집회를 갖지 않았다. 윤대혁 목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교우들 중 두 가정의 집이 전소되었으며 화재위험으로 대피한 교우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산불을 진화해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대기오염 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하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께 위로가,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소방관원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가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사우스파사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송금관 목사)는 "8일 자정부터 교회가 있는 동네가 정전이 되었으며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산불로 인해 날라든 재가 교회에 가득 쌓였다. 교우들에게서 안부전화가 많이 걸려왔으며 토요일 오전에는 교우들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위한 대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캘리포니아 화재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제목을 정하고 교우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배시간에 이를 위한 합심기도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평강교회는 또한 12일(주일) 교인들과 함께 산타아니타 파크 남쪽 주차장에 마련된 기부센터에 기저귀, 애완동물 통조림, 마스크, 비닐장갑, 두루마리 휴지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LA산불피해민들을 돕기위해 마련된 산타아니타 파크에 위치한 기부센터 모습(사진제공: 평강교회)

한편 △연합감리교 가주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석부 목사)는 회원교회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하고 산불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코리언 코커스는 "며칠 전 시작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산불을 진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연회에서는 현재까지 Altadena UMC 그리고 Pacific Palisades UMC 두 곳이 이번 산불로 인해 교회 건물이 불타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저희 코커스 회원교회 중에서도 이번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시어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신 교회가 있으시다면 코커스 총무이신 전재홍 목사(213-700-4973)에게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은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주일 예배 중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인 마스크와 얇은 이불(Blanket)을 구입하여 신속하게 전달 하고자 한다. 또한, 산불 피해민들에게 지원할 후원금 또한 요청하오니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협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N95, KN95, KF94, 일회용마스크 2,000장은 10일(금) 전달했으며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수집된 구호물품은 16일(목)에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연세신년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2025년 연세신년조찬기도회 열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연세신년조찬기도회가 1월 11일(토) 오전 8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란 주제로 열렸다.

서문준 장로(연세조찬기도회 회장) 사회와 환영인사로 시작된 기도회는 지용덕 목사(양곡교회/수석부회장) 기도, 신서영 권사 성경봉독, 여성중창단 특별찬양, 박충기 목사(Jesus Image Society 이사장) 설교로 진행됐다.

박충기 목사는 '믿음을 만드신 주님'(히 12:2)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면 바뀌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믿음이 있어야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자. 엘에이의 산불도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꺼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뤄 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기도 시간을 갖고 조후연 목사가 '남가주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김영대 목사가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태섭 회장이 '모교 연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박종대 목사가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그리고 신명균 목사가 '한인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이원모 회장(연대남가주동문회장), 권영대 목사(연목회장)의 축사와 표정철 LA부총영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떡국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토렌스조은교회 창립3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 감사예배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창립3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한다. 이날 설교는 Paul Chitwood 목사(International Mission Board 총재)가 하게 된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임직감사예배를 갖는다.

▲ 문의: (310)370-5500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6주년 감사예배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이날 임직식은 2부예배시간(오전 10시 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충현선교교회 2025 신년 부흥집회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는 2025 신년 부흥집회를 '기도로 북한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민족(시 118: 17)'이라는 주제로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갖는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는 임현수 목사(캐나다 큰빛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7일(금) 저녁 7시30분, 18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 19일(주일) 오전 8시, 8시30분, 11시3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818)549-9191

새생명비전교회 이지선 교수 초청 간증집회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지선아 사랑해〉 저자 이지선 교수(이화여대 교수) 초청 간증집회를 24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373-0110

남가주샬롬교회 일일부흥회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는 일일부흥회를 19일(주일) 예배시간(오전 8시, 9시30분, 11시)에 갖는다. 일일부흥회 강사는 김월림 아이티 선교사

▲ 문의: (310)787-1004

122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이 밀레니움 빌트모아호텔에서 열렸다

122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우리 사회는 단합하고 서로의 성장을 이뤄 날로 번영해야"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는 122주년 미주한인의날 기념식을 12일(주일) 오후 4시 밀레니움빌트모어호텔에서 열었다. 이병만 회장은 "오늘 기념식은 미주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화마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남가주와 몸부림치고 있는 한국 등 상처받고 희생당한 분들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오프닝 한복쇼와 승기선 아나운서, 미미 송 박사 사회로 열린 기념식은 양성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의 기도, 임경혜 준비위원장 인사, 국민의례, 이병만 회장 환영 및 결의안 전달식, 유수연 교육위원과 세리 스테판의 합심기도, 정동익 이사 대회사 및 선포, 최석호 가주상원의원, 피오나 마 가주재무장관, 조현식 한미동맹협의회 회장, 프래드 위테이커 미공화당협 OC위원장 축사로 이어졌다. 최석호 의원은 "2025년 1월13일 미주한인의 날 12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뜻 깊은 날을 기념하며 한인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우리 다짐을 새롭게 다져본다"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이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우리사회는 단합하고 서로의 성장을 이뤄 번영을 이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가교로 두 나라가 협력 증진해나가야 한다. 미주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성공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래드 위테이커 미공화당협 OC위원장은 미주한인의 날 122주년을 축하하며 미주한인의 날이 최초로 제정된 2003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파바2세 사물놀이단의 사물놀이, 소노로스싱어즈의 찬양, 그리고 이강철 한국시낭송선교회 회장과 심미옥 씨의 애국시 낭송이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122주년 미주한인의 날 감사예배는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한인 2세가 주도하는 찬양집회 코리아타운 예배 세션

'A Thousand Generations' 1월 25일(토) 오후 7시

한인 2세들이 주도하는 찬양집회가 'A Thousand Generations'의 주제로 오는 1월 25일(토) 오후 7시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다.

단결, 영적 성장, 그리고 강력한 예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코리아타운 예배 세션 '예배와 기도의 밤'(Koreatown Worship Session: Night of Worship & Prayer)의 주 타깃 층은 젊은 성인들이지만 어린이들부터 노년층까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준비되고 있다.

본 집회는 'A Thousand Generations'이 의미하듯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교회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본 집회를 위해 뉴욕에서 오는 워십 리더 영 리(Young Lee)는 "음악,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영감을 중요시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그분께 찬양을 올리자"고 강조했다. 영 리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에서 2009년에 음악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소명에 응답하여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 학위를 2015년에 받았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 장로) 회원사들이 미디어 파트너로서 후원하는 있는 '예배와 기도의 밤'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행사로, 로스엔젤레스만이 아닌 여러 주요 도시별 일정도 구축할 계획이며 첫 집회는 나성제일교회(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에서 열린다.

티켓은 무료이나 가급적 참석을 위한 예약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www.eventbrite.com/e/koreatown-worship-session-night-of-worship-prayer)

행사에 대한 문의 이메일은 atgworship@gmail.com 인스타그램은 @atgworship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양곡교회 교계연합 부흥축제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돼야"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 교계연합 부흥축제가 신년 1일(수)부터 4일(토)까지 지용수 목사(한국 양곡교회, 예장통합 증경총회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3일(금) 오후 7시에 열린 셋째날 집회는 민종기 목사(교협증경회장)의 감사와 환영인사가 있은 뒤, 심진구 목사(목사회 증경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진석호 목사(바이블아카데미 원장) 기도, 백지영 목사(목사회 증경회장) 성경봉독, 양곡찬양단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지용수 목사가 '기도의 대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용수 목사는 "성경에는 기도의 대가들의 모습들이 나온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으며, 다윗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도의 대가처럼 기도의 대가가 되면 겁나는 것이 없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용수 목사는 말씀을 마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모인 자들이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등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했다. 설교에 이어 최학량 목사(교협증경회장)가 축사했으며 류당렬 목사(교협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토요일 오후 7시 마지막 날 집회는 박종대 목사의 환영인사와 엄규서 목사(목사회 증경회장) 사회로 시작 해, 기도 심진구 목사, 칠목회 가족의 특송과 조지혜 간사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이어 지용수 목사는 '성령'(마26:36-46)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김재연 목사(전 칼빈대 총장)의 축도로 모든 집회일정을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양곡교회 교계연합 부흥축제에서 지용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분단 80주년, '다시 새롭게' 통일 향해 뛴다

교단과 협력해 통일의 불씨를 지펴 나갈 것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통일을 염원하며 간절히 기도로 새해를 열고 있다. 연초부터 통일을 위한 집회와 캠프가 이어지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13일 경기도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는 예수전도단(대표 김명선 목사)과 새중앙교회가 주관한 제18회 통일비전캠프가 열렸다. 첫째 날 강사로 나선 김동춘 서울제일교회 목사는 규약 예레미야애가 5장을 본문으로 분단된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다. 그는 "2025년은 통일의 새벽 여명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한반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비전캠프는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다시 새롭게'를 주제로 김 목사 외에 황덕영 새중앙교회 목사, 김승욱 할렐루야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조별모임과 선택 강의가 이어지며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유니블하트, 부흥한국이 찬양 집회를 이끈다.

김명선 예수전도단 대표는 개회예배에서 "통일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며 "캠프에 모인 청년들이 통일의 비전을 품고 한반도의 새로운 아침을 열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 이주미(24·여)씨는 "통일이 된다면 내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 북한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도 이날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스더 7:3)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에스더기도운동은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북한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한 금식기도성회를 이어오고 있다. 여름에는 하루, 겨울에는 사흘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의 안녕과 하나 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왔다.

16일에는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의장 박동찬 목사) 월례기도회가 경기도 일산광림교회에서 열린다. 2012년 시작해 129회차를 맞은 기도회에서는 박동찬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박 목사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옅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연합해야 할 때"라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화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단 80주년에 맞춰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기도 공간도 마련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올해 인천 강화에 통일을 위한 기도처소를 건축할 예정이다. 박 목사는 "북한 지역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기도처소가 세워질 것"이라며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은 한반도 분단 80주년에 교단과 협력해 통일의 불씨를 지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 "디아스포라 리더십으로 세우는 사역에 매진"

초교파 목회자 모임 '횃불회' 활성화

40여년간 크리스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데 힘쓴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원장 유승현)이 새해를 맞아 '리포지션(Reposition),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를 주제로 목회자의 내적 소명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목회 원리를 공유하며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공표했다. 국내외에 있는 고려인 등 한인 디아스포라를 리더십으로 세우는 사역에도 힘쓸 예정이다.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횃불선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역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유승현(사진 가운데) 원장은 "국가적·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합하길 소망한다"며 "그동안 목회자들의 내적 소명을 새롭게 한 강의를 비롯해 리더십 콘퍼런스, 디아스포라 중앙아시아 비전트립 등의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16개 지역에 분포한 초교파 목회자 모임인 '횃불회'를 이끌고 있다. 횃불회는 강의를 기반으로 목회 경험과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게 펼쳐지도록 돕는 초교파적 연합의 장이다.

지난해 횃불디아스포라 리더십훈련(TDLD) 사역을 통해 중앙아시아 리더십을 한국에 초청해 영적으로 훈련한 프로젝트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말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2025 횃불 디아스포라 중앙아시아 비전트립'을 개최한다.

유 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조선족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디아스포라를 한국교회와 연결해 이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청지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장합동·통합 임원 연합예배 "선교 140주년 함께 기념하자"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재확인, 부흥 위해 협력 공감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과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 총회 임원들이 신년 연합예배를 드리고 선교 14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로 했다. 14일 예장합동 총회 초청으로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만난 두 교단 임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이날 만남에서는 예장 합동·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세개 교단이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김종혁 총회장도 화합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회장은 "우리 두 교단은 과거 (분열)의 아픔과 하나 되려는 노력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가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손잡고 109회기를 섬기자"고 권했다.

예배에는 예장통합 김 총회장, 정훈·윤한진 부총회장, 이필산 서기, 서화평 부서기, 김한호 회록서기, 김승민 부회록서기, 박기상 회계, 박경희 부회계와 예장합동 김 총회장, 장봉생·김형곤 부총회장, 임병재 서기, 서만종 부서기, 김종철 회록서기, 안창현 부회록서기, 이민호 회계, 남석필 부회계가 참석했다. 김보현 예장통합 사무총장과 박용규 예장합동 총무도 배석했다.

두 교단의 뿌리는 1912년 창립한 조선예수교장로회다. 칼뱅주의 개혁신학과 대의 민주제를 따르던 교단은 1943년까지 명맥을 유지하다 일제에 의해 해산된 뒤 해방 후 다시 조직됐다. 하지만 1959년 예장합동과 통합 총회로 분열했다.

갈라졌던 교단 임원들이 공식적으로 다시 만난 건 1995년이었다. 그해 1월 예장통합 신년하례회에 예장합동 총회장이 참석했고 예장통합 총회장도 답방했다. 한 달 후 김기수 예장통합 총회장과 김덕신 예장합동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이 교단 분열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해 8월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고 이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주제 정해주니 맞춤 자료 생성 척척, 작은 교회들 기대감

AI 활용 성경학교 자료 제작해 보니

다음세대 양육의 좋은 기회인 겨울방학이지만 재정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작은 교회들은 겨울성경학교 운영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작은 교회의 고충을 덜어줄 보조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교회가 AI를 활용해 겨울성경학교 캠프 자료를 제작한다면 어떨까. 실제 올해 한국교회 신년표어 중 하나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를 주제로 AI에 성경학교 공과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 봤다. 첫 단계는 사용자와 AI가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 프롬프트 제작이다. 캠프 기간(2박3일)과 참여 대상(5~13세)과 공과공부 횟수(3회)를 지정하고 공과공부 내용 제작, 주제찬양 추천, 보조자료(그림, 율동, 후속활동) 요청, 교사용 교재 제작 등을 명령어에 넣었다. 프롬프트를 받은 AI는 단계별로 자료를 생성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주제에 맞는 성경구절(마 22:37~39)을 중심으로 공과 내용을 제시했으며 주제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을 추천했다. 보조자료로 그림 자료와 율동 영상, 후속활동 등 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결과물에는 영상자료와 그림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가 포함돼 있었고 사이트 내 자료 활용을 돕기 위해 공과 교재와 내용에 맞는 검색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도 돋보였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작은 교회 현장에선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 목사는 "지금의 교회학교 아이들은 AI와 함께 자라는 멀티세대"라면서 "AI를 통해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눈높이에 맞는 성경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좋은 보조자가 되려면 얼마나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선교연구원 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장 조성실 목사는 "AI를 활용해 시간 절약과 효율성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여러 번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조정할수록 원하는 답변과 가까운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본문 선정은 목회자나 성도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신학적으로 재정립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서 목사는 "AI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도구일 뿐"이라며 "AI가 제공하는 자료가 교리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안미션 "선교사들의 필요 살피는 사역 확대할 것"

멤버케어 실무자 초청해 사역 설명회 개최

'국내에 거처를 두지 않은 선교사,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타국에서 재난 강도 등으로 피해 입었을 때 선교사들도 자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AM·대표 이상준)은 지난 10일 국내 선교단체 멤버케어 실무자를 초청해 사역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소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은 재난 위기 대처 등에 대한 실무 강의와 함께 영적·신체·의학적 돌봄(건강검진 등)을 비롯해 훈련, 팀 구축, MK(선교사 자녀) 돌봄, 긴급위기 지원, 상담 등 전방위적 돌봄 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리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설명회에는 WEC국제선교회,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GMF), GMTC, OMF, 인터서브코리아 등 64개 선교사 파송단체,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한국기독학생회(IVF), 예수전도단(YWAM) 등 10개 캠퍼스 선교단체, 지역별 이주민들과 이주민 사역자들을 돕는 AM 협력 이주민코디 목사 9명 등 83개 단체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알아야 할 실무 강의도 열렸다.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신고, 국가장려금 혜택 등을 알리는 선교사 소득신고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선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인명과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지 않으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독교경찰해외선교봉사단 성보경 단장은 선교지 위기 상황의 대처에 대해 강의했다.

AM은 올해 해외선교사의 개인별 후원금을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국내 이주민·캠퍼스 사역 지원도 전년 대비 50% 늘려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많은 사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준 AM 대표는 "한국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현장 선교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모두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살펴 현장 상황에 맞게 재정, 쉼, 선교관 등 AM이 가진 많은 인프라와 네트워크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M은 1981년 국내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랜드가 설립한 사단법인 단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외 사역자 2769유닛을 지원했으며 이랜드 소재 호텔사업부와 협력해 선교사들에게 숙박 및 식사 지원, 선교관·유학생호스텔 제공,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욥의 속 울음과 교회 공동체

〈2면에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항의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에게 부탁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최후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도 인간의 운명인 '아니요'와 '예' 사이의 긴장을 체험하였다. 모든 분노 뒤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은 무의식적 열망이 숨어 있고, 모든 수용 뒤에는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달아오르며 거기서 태어난다. 시편에도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아니요'와 '예'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열정적 찬미가 극적으로 함께 녹아 있다. 고통의 한 부분으로서 분노는 믿음과 신실함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다.

교회 공동체는 분노의 속 울음인 이면과 심층 감정의 불안, 상처, 기대, 수용과 같은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시몬 베유(Simone Weil)는 무언의 울음 또는 속 울음이라는 이미지로 심한 상실과 외상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을 말한다. 속 울음은 너무도 깊고 몸서리치는 것이어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 그녀는 상실과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런 속 울음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이런 속 울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람들의 속 울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속 울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실천으로 이해한다(Simone Weil, "Human Personality" in The Simone Weil Reader, 313-339). 교회 공동체가 심한 상실과 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속 울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by 최창국, TGC〉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변화하는 선교사의 역할

21세기에 선교사의 역할은 글로벌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제자를 만들라는 핵심 사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대 선교사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공동체의 영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여 개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선교사의 관심의 변화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변화의 중개자, 촉매자로서의 선교사

현대 선교사들은 전도와 사회 발전을 통합하는 전체적 선교 전략에 참여하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윌리암 캐리와 같이 초기 선교사들이 교육, 의료, 경제 개발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영적 및 물질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직접적인 복음전파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가 삶의 다양한 현장의 변화에 소홀하였던 시대를 반성하며, 효과적인 선교 활동이 개인과 공동체의 전반적인 복지를 포괄한다는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사회의 변화의 중개자이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필요와 열망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참여적 접근은 선교사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사전에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어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한 직업 훈련, 소액 금융 프로그램, 농업 개발 등 자립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지역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 network 같은 곳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효과적인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선교사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지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 사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지원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조직이나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등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발 노력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는 지역사회 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단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글로벌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의 배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행, 신학적 통찰, 문화 연구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사회적 맥락(context)의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만큼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경험과 방법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역할은 선교사 사역의 핵심 요소로서, 역사적으로 목회적 돌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은 정서적, 영적, 때로는 육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와 선교사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자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조언을 하며, 고난의 시기에 위로를 제공하는 등 목회적 돌봄을 실천해 왔습니다. 일제의 말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듯이 이러한 역할은 초기 기독교 교회와 다양한 문화에서의 선교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현대 선교 사역에서도 멘토링과 위로 제공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은 현지 지도자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역과 지역사회 리더십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도전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역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 소명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적 돌봄, 상담, 멘토링에 중점을 둔 정규 교육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 나가기 전에 가능한 많은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험많은 목회자 출신들이 선교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워, 다양한 문화권의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멘토링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경험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교사 후보일 경우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의 지도하에 멘토링을 받아, 피드백과 지원을 통해 멘토와 위로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적 강건함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자기 인식, 공감, 대인 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복잡한 감정적 상황을 잘 다루고, 공감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옹호와 사회 정의에 민감한 선교사

선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선교 현지의 빈곤, 불평등, 인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교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난 세기의 전통적인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복음전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지인 성도들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개인전도 강조는 많은 개종자들과 조직 교회를 탄생시켰지만 현지 교회들이 사회 정의나 사회 개혁에 불감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 세대에서는 다양한 선교사의 역할 가운데 사회 정의를 옹호함으로써 선교사들은 복음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며,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노력을 현지인 개종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현장에서 실천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 보다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 신학자들의 소리보다는 삶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정의를 실천하는 선교사의 삶에서 더욱 큰 영향을 받게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dr.yongcho@gmail.com

C.S 루이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C.S. 루이스와 사도 바울의 선교사 준비 과정 비교

20세기 프랑스의 기독교(Protestant) 지성이요 사상가인 자크 엘륄(Jacques Ellul)은 현대 기독교의 특징적 현상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말한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시대를 붙들고 투쟁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주목해야 할 말이다.

일찍이 C.S. 루이스는 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붙들고 투쟁했다. 루이스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1세기 선교사 사도 바울도 온 힘을 다해 선교현장을 누볐다. 복음이 닫힌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C.S. 루이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본다.

첫째로, 두 영웅은 교육열 강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둘은 부모 교육열에 힘입어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선교사 훈련을 충실하게 받았다. 사도 바울과 C.S. 루이스가 최고의 선교사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다는 것이 현대 선교사와 목회자 훈련의 좋은 참고자료다.

사도 바울의 부모는 신실한 유대교 신앙인으로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다. 디아스포라였던 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헬라시대 교육 도시, 다소(Tarsus)에 정착했다. 다소는 그리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의 요람이었고 교육열이 강했던 교육도시였다. 고대 역사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다소가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더불어 헬라문화권 3대 교육도시 중의 하나라고 밝힌다.

또 스트라보는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가 상주해서 훌륭한 교사를 보유한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는 온 세계에서 모은 서적을 보유한 도서관과 훌륭한 대학 시절을 보유한 교육도시였고, 다소는 중산층 부모들의 강력한 교육열을 자랑하는 교육도시라고 소개한다. 다소는 스토아 철학의 스승들과 교육열이 강한 중상층 상공인의 거주하는 교육도시였다.

다소에서 정착하여 아들에게 헬라식 교육 기회를 제공한 사울(바울)의 부모는 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에 이주했다. 그들은 총명한 아들을 당시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 문하로 성장케 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로, 아버지 시몬에 이어 존경받는 랍비였다. 역사가들은 가말리엘 문하생 중에 기독교 신자가 많았는데 바나바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한다.

바울이 받은 교육을 현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상의 교육이었다. 세계 최상의 교육도시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게 했고,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구약과 유대교 신학을 공부하게 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1세기 선교사 사울은 헬라인과 유대인을 선교할 준비를 했다.

20세기 선교사 C.S. 루이스도 탁월한 교육을 받았다. C.S. 루이스의 부모는 강한 교육열을 자랑했다. 성공적인 변호사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는 새집을 짓고 새집의 모든 벽을 책으로 채웠다. 책이 가득한 집에서 아들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배려였다. 루이스의 어머니 플로렌스는 루이스의 어린 시절에 루이스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플로렌스는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어머니였다. 사랑과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는 루이스가 9살 되던 해에 사망했다.

C.S. 루이스의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자 두 아들 교육에 몰두했다. C.S. 루이스의 전기를 쓴 작가마다 아버지의 교육열을 언급한다. C.S. 루이스 아버지는 여러 장면에서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준다. 앨버트 루이스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숙학교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앨버트 루이스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옛 스승 커크패트릭(Kirkpatrick) 선생을 찾아 아들을 맡겼다. 루이스의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는 아들 루이스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루이스의 학비를 지원했고,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지원했다.

이런 부모의 교육열에 힘입어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읽고 쓰는 훈련을 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만난 커크패트릭 선생으로부터 논리적 사고와 고전어 그리고 유럽어를 익혀서 폭넓은 인문학 공부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았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유럽의 최고 대학이었고 세계에서도 가장 탁월한 명문대학교다. 루이스는 이 명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탁월한 학생이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며 교수로 임용되기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다.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루이스는 폭넓은 공부를 했고, 고전 문학, 철학,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루이스의 학습 능력이나 그의 성실성을 고려한다면 교수 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루이스의 생애를 보면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의 강팍한 심령을 복음으로 설득할 유능한 소통 전문가를 기르셨다.

루이스는 자신이 살았던 20세기 중반에도 호평받는 작가였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다. C.S. 루이스는 21세기에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 유능하고 뛰어난 작가다.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을 그의 책과 글로서 복음으로 인도한 탁월한 문학(혹은 문서) 선교사다. 지금도 많은 독자를 열광시키는 C.S. 루이스는 탁월한 문서선교사다.

어떤 형태로건 현대 선교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실을 직면한다. 현대 선교의 장벽을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과 C.S. 루이스를 생각한다. 두 사람은 현대 선교의 모델이다. 두 선교의 영웅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많지만, 선교사로 잘 훈련된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찌든 상황과 흡사한 선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그 장벽을 극복한 영웅들이기 때문이다.

해체주의와 다원주의가 횡행하는 현대 문화는 온갖 종교가 자리를 잡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를 연상케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주창자 중의 하나인 이합 하산(Ihap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을 1939년 9월로 주장한다.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로 부상하던 때다. 당시 영국은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운이 가득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눅 9:22-23) 찬 545장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심을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삼 일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수준으로 알 수 없다. 베드로는 자신 수준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되며 자신이 최대한으로 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수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준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죽음이다. 그 죽음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형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

화 주인이 인정하는 자 (눅 9:46-48) 찬 374장

죄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 즉 육신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며 욕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의 것을 누리고 산다. 주님을 모시고 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낮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삶이기에 낮은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주인을 높이는 자를 주인이 높여 주신다. 비록 내가 사람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모시고 섬기는 주님 앞에서도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주인이 그를 인정하시고 주인이 그를 높여 주신다.

수 제자들의 말 속에 드러난 죄 (눅 9:52-56) 찬 330장

육신의 것을 누리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육신에서 나타나는 교만을 누리는 것을 보라. 죄를 누리는 것이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다. 충성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미워하고 멸하고자 하는 육신의 것이 나타난다. 본래 저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시하고 멸시함이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죄가 예수님을 핑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에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변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셨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목 왕께서 주신 권세 (눅 10:5-7) 찬 585장

만물의 주인께서, 왕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입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하면 복이 그곳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머문다고 하신다. 전능하신 주인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주인이 다스리시는 만물에서 주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마치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권세를 왕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왕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게서 그분의 영광이 권세가 나타나시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주인이 주신 권세를 믿음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에게서는 사망이 흐르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 귀신이 항복하는 권능 (눅 10:17-21) 찬 384장

칠십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한다. 만왕께서 권능을 주셨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다. 다스리심이 지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영의 세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왕의 권세가 지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실상을 알고 보고 누리고 하여야 한다. 빛이 임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법이다. 왕이 주신 권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다.

항상 믿음으로 깨어 영원하신 왕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자임을 알고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

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눅 10:38-42) 찬 546장

마르다는 자기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육신의 생각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자기 혼자 수고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에 관한 섭섭함이다. 자기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 기쁨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을 가르치신다.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마리아가 잘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무엇을 더욱 기뻐하실까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마리아가 하늘의 것을 생명의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더욱 알고 받고 누리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더욱 원하신다.

교회음악 이야기(68)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축복 (삼위일체 찬양)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바른 정의들이 손실되는 일들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의해 본질이 쉬 변화되어 그것이 마치 오랜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진리로 호도되는 블버리즘(Bulverism)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출발점이 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본질을 마음 중심에 깊이 담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우리의 예배에서 끊임없이 고백 되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찬송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뿌리요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제자들과 속 사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던 펜(fan)에서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된 후 그들이 목숨을 던지며 삼위일체 복음을 확장해 가던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AD67년 로마의 네로 황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AD 36-68)로부터 시작되어 AD 313년 밀란칙령(Edict of Mila)에 이르기까지 무려 246년 동안이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종교나, 영지주의(Gnosticism) 등의 영향으로 삼위일체론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성직자 중 한 명인 아리우스(Arius, 250/256 - 336년)가 중심이 된 아리우스파에 의해 삼위일체론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되어 결국 삼위에 대한 부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종식된 후 첫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 (First Council of Nicaea, 325년)에서 대두된 가장 큰 논쟁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신성을 강조하며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이 결국 당시 알렉산드라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에 의해 삼위일체론을 정론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과 정통 수립 과정은 신학적 논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그 안에서 드리는 찬양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세기 이후 교회들에서는 삼위일체 영광송(Trinitarian Doxology)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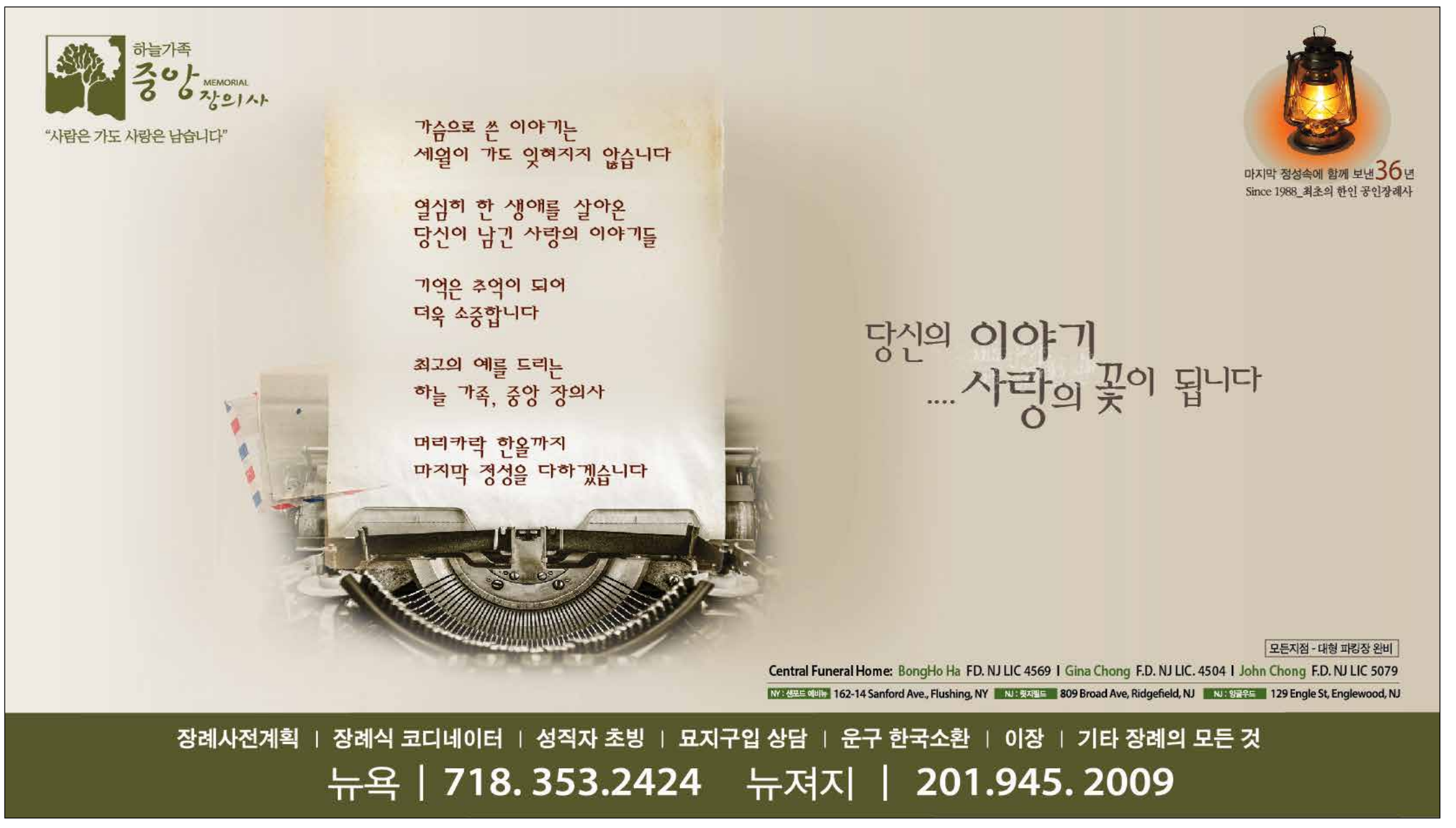
삼위일체 영광송에 관한 곡 중 최근에 조성원 작곡가가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축복" 의 찬양을 보며 필자는 사도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차 편지의 종결 부분인 고후 13:13"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지러운 소식을 접한 다음 그것을 불식시키고자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자 그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 에베소로 돌아와 디도 편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편지의 종결에 바로 삼위일체의 정당성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며, 구원의 모든 과정에 각 위격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조성원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찬양의 내면을 살펴보면 먼저 인트로에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는 호모포닉 형태의 정석으로 팡파르를 울리게 합니다.

이어 여성의 유니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남성의 유니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그러고 나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지키심을 호모포닉 형태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렴부를 조성하여 세 번에 걸쳐 오늘 본문에 비추는 모습처럼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심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15마디의 코다를 사용하여 길게 "아멘" 텍스트를 가지고 화성적 아름다움을 펼치며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을 담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를 우리의 조건과 신분이 어떻든 아무 상관 없이 그저 주께하듯 겸손함을 갖고 삼위 하나님을 축복하는 찬양을 드리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으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본질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앵커(닻, anchor) 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 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탁은 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분명한 목적 즉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닮아 그 성품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열심히 일하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iyoon@wmu.edu



가정선교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부관계가 좋을 때 부부는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행복해지려면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의 부부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 영적 의미에서의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뒤바뀌어진 가정의 질서회복이 급선무라 사료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는 여자〈남자〈그리스도〈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작금에 그 질서가 뒤바뀌어, 남성상위〈남녀평등〈여성상위〈여성존엄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집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순복)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5:22, 골 3:18, 벧전3:1,6)고 하셨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6:33)고 했습니다. 원래 복종이란 말은 군대용어로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란 뜻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에겐 자존심 상하고 거부할 만한 말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고 경외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6:25)고 하셨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헌신적, 희생적으로 아내를 자기 몸같이(엡 6:28)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잔소리와 꾸지람을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를 이겨낸 잔소리와 꾸지람은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기도야말로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여는 열쇠며 하루를 닫는 자물쇠 와 같습니다.

4. 아내들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존경받도록 힘쓴다.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바가지를 긁지 말고, 남편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들과 함께 남편(아버지)이 존경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5. 성경적 대화에 힘쓰라.

부부간의 불화, 갈등, 별거, 이혼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대화 내지 불통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대화로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대화법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대화의 십계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잠 25:11). (2)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한다(막 9:50, 골 4:6). (3)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한다(엡 4:29). (4) 감사하는 말을 한다(엡 5:4, 살전 5:18). (5) 바른말을 한다(딛 2:8, 마 5:37). (6)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다(고후 1:4) (7)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한다(약 1:19, 전 5:2). (8)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약 3:10-11). (9)칭찬의 말을 한다(롬 14:18). (10)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다(민 14:9, 막 11:23).

6.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구원에 있고, 그 중에 최대 관심사는 가정(가족)구원을 위한 가정선교에 있고, 가정선교의 최종 목적은 전가족(Whole Family) 구원에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따로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한명은 신앙생활하고 한명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순복)하며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 가정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미얀마

▲ 종족명
러응뚜 친 종족

▲ 인구
약 5,000명

▲ 종교
기독교 10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친주 남부에 주로 거주한다. 다양한 방언이 있으나 유사하다. 그 중 쭌남이라는 방언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러응 뚜어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침례교와 안식교 간의 분열로 공동체 결속이 많이 약해졌다.

▲ 기도제목
1. 러응뚜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복음을 바로 알도록
2. 약화된 공동체가 화해와 용서로 다시 세워지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저는 천수답(天水畓)입니다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오늘(6일) 새벽부터 새해 2025년을 위한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 탓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새해를 위한 특별새벽기도는 드려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으로 "나는 천수답이다"라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수답이다."

저는 농사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시며 평생 농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농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하늘을 하늘같이 여기시며 농사에 전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새벽기도 첫날 말씀을 듣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를 태워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길이 없단다..."

아버지의 이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엄하고 엄하셨던 아버지께 감히 입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지요."라고 전도랍시고 말씀을 처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 아버지는 순한문으로 된 성경을 구해다 달라고 부탁하셨고, 제가 구해다 드린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계시던 상투를 자르시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저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논 가운데 "천수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특별새벽기도 첫날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수답은 하늘에서 소나기같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모를 낼 수 없고,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수답은 말만 논이지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논 구실을 못하는 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논, 하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논,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바로 이 천수답이 제게 기억나면서 그 천수답이 바로 "나 자신"으로 오버랩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나는 천수답이다. 천수답에 소나기가 쏟아져야 논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겨질지라도, 천수답이 논의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까지 제 가치를 드러낼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요 무슨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새해 첫날 말씀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새벽에는 제가 천수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천수답이라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잠겨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1-2)."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 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엔데믹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 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동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동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신 년 사

미주 한인교회의 비상을 기대하며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PCA-CKC 회장)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새로운 한 해인 2025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전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교회마다 천국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내고 목회자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목회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는 버지니아 수도 리치몬드에서 PCA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PCA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약 3천여명의 미국 목회자들이 참석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먼저 미국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탄생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를 소개하면서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미국 목회자들과 함께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미국 목회자들은 평생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에 동참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큰 도전을 받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많은 미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에 대한 확신과 온 마음을 다해 쏟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온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과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reachchrist@kcpc.org

[시카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민족 사역] (下)

홍귀표 목사
KAPC 전 총회장/다민족교회 담임

다민족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열매

영어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1999년에 우리의 대학생 사역은 지역교회로 변경되었다. 나는 대학생 사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도전들과 문제들을 대하게 되었다. 어떤 성도들은 영어를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하거나 전혀 하지 못했다. 다른 족속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편한 관계가 증가 되었다.

얼마후, 아마도 약 2년이 지난 후, 우리 사역이 다민족 교회가 되어갈 때 성도 중 스페니쉬 자매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들 중 리더인 자매에게 왜 그들이 나를 멀리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 "목사님, 이 자매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그 대답에 놀라며 응답했다, "왜 그렇죠? 내가 그들을 얼마나 깊은 관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자매가 나의 항변에 답하기를, "목사님은 그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한국 남자로서 나는 한 번도 공적인 장소에서 특히나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나의 아내에게조차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다민족 사역을 위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첫째로, 다른 문화와 종족의 사람들을 섬기려면 나의 문화와 전통대로 라면 매우 불편하고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융통성을 가지고 그들과 동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남자로서 나는 유교사상에 의해 형성된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다른 문화와 전통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익숙한 문화와 전통을 조정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알려주셨다. 그것은 사도바울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한 말씀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9:19-23).

둘째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나누려면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나의 행위와 태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나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는다.

언제인가 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형제의 태도에 마음이 쓰였다. 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동안 그 형제는 항상 아래만 내려보고 인도자인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몇번 그룹 공부를 가진 후 나는 그 형제에게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가끔이라도 나를 쳐다볼 것을 권면했다. 하지만 그 형제는 나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룹 모임 때 아래 만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결국,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 그 문제를 다시 나누었다: "형제님, 제가 그룹 모임 인도할 때 밑만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라고 권면하지 않았나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는 대답했다, "목사님, 우리 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이 어른이 말할 때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어른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형제의 말에 나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내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나에게 맞출 것을 요구" 하기 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연결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와 형편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족속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종종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나의 오해, 그리고 나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그들의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으로 항상 나를 격려하신다: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5). 너는 너의 노력으로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 나는 이 말씀을 자주 붙든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주님 저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나는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저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 12월 현재 주님은 우리의 다민족 사역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 캐리비안으로부터 온 24개국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주님께서 이사역을 통해 여러 족속들을 어떻게 축복해주셨나를 나누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온 한 형제의 간증을 싣고자 한다.

형제의 이름은 사무엘 레비 (Samuel Lebbie)이다. 그는 수년전 서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피난 온 형제이다.

나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때문에 2015년에 미국으로 피난 온 난민이다. 다민족 교회의 일원이었던 한 일본 형제의 전도를 받고 다민족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교회는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첫날부터 나와 함께해주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나의 난민 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회보장 신분증 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일자리를 잡아 나 자신을 위한 제정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씨에라 리온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딸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미국에 온 많은 난민이 여러 해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사회보장 신분증을 받지 못해 운전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다민족 교회는 또한 내 영적 은사를 써서 교회 사역을 섬길수있는 배려도 해주었다. 나는 날마다 이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카고에 와있는 더 많은 족속을 전도해주시길 기도한다.

이곳 다민족 교회사역에 참여하며 훈련받았던 몇몇 리더들은 자기들의 본국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베닌, 큐바, 베네주엘라 등)으로 돌아가 선교 사역을 하고있기도 하다.

결론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중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마태복음 6:10)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계시록 7장 9-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증거 해 준다. 그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린양 앞에 서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 다민족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계시록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8).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이 다민족화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다민족 구성도가 높다. 페티 레인 (Patty Lane)은 "미국에 존재하는 다문화는 세계만방에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바로 많은 다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주에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되는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GRS and RPTSE

GRS 신학교와 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AUGUST 15TH 2024

Th.M(성경적 상담학 석사)개설 - 특별히 성경적 상담학 석사 과정은 조지아에 위치하고 있는 GRS(Global Reformed Seminary)와 학점교류 MOU를 체결하여 양 신학교의 졸업장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Th.M(성경적 상담학 석사)	2년 과정	목회학석사(M.Div) 졸업자

◆ 특 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
1)기타반 2)키보드반 3)하모니카반

입학 상담 문의: 646-708-1101

2025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교역학		3년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및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제 출 서 류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 2매
❻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5년 1월24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 학 시 험: 2025년 1월2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5년 1월27일(월) - 1월29일(수) 저녁7시30분
문 의 처: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 www. rptseast.org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